Kohung Assembly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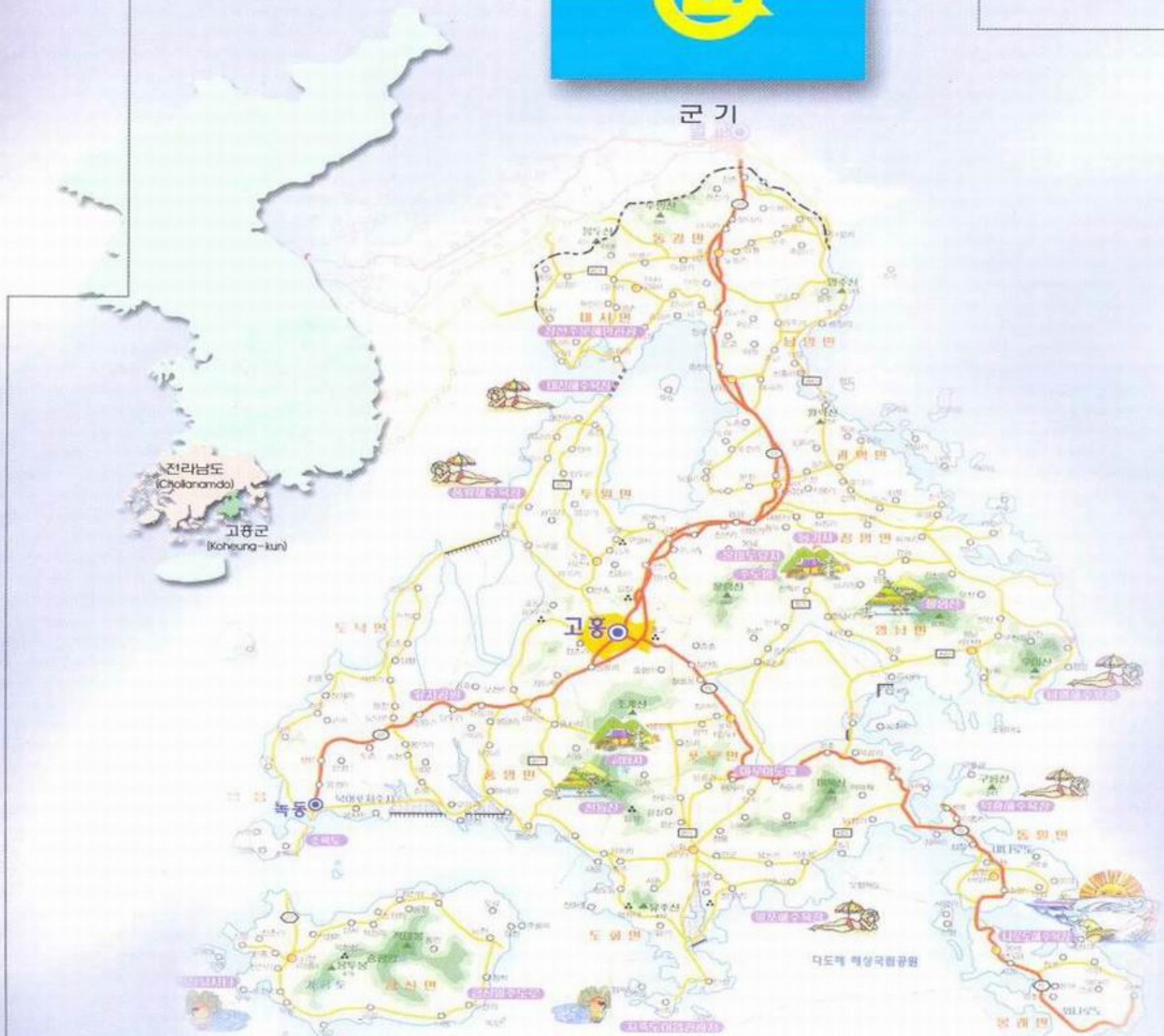
의정소식

고흥군의회

하반 일출(봉래면)

고흥의 상징

군 기



군목 : 유자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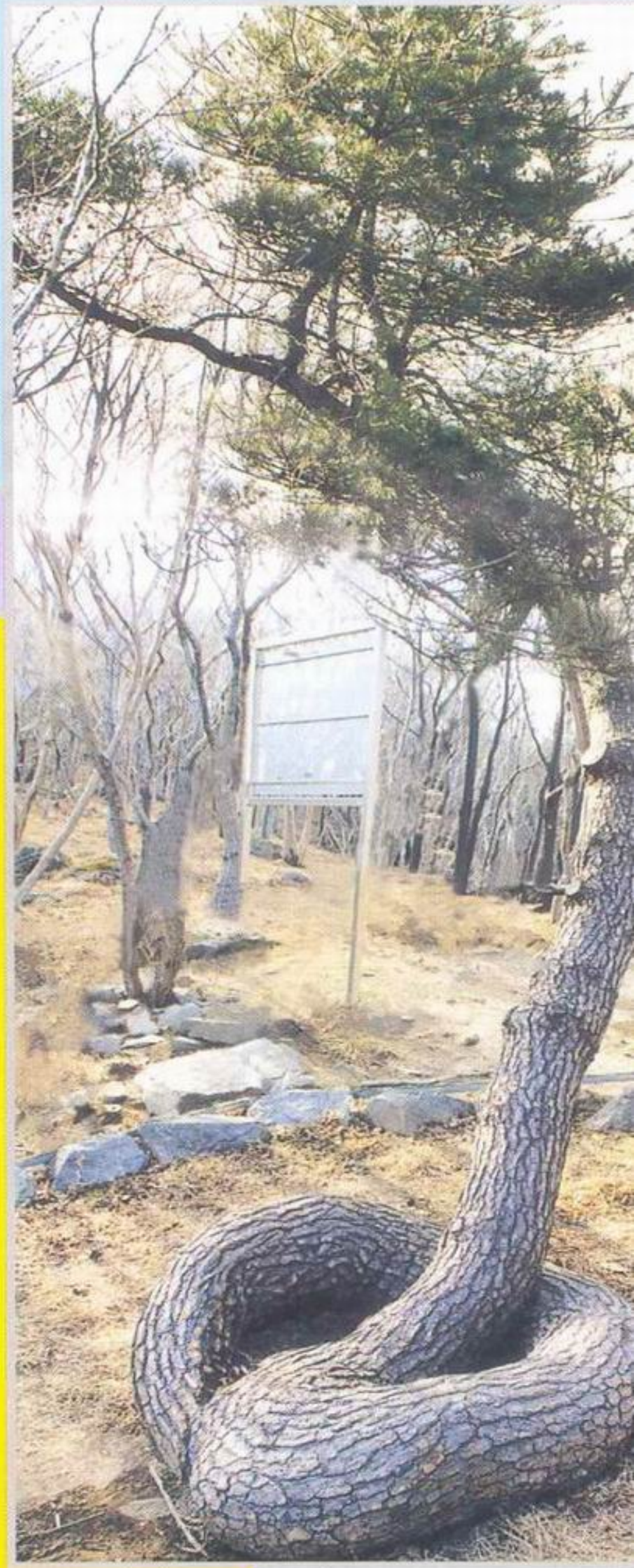
군화 : 동백꽃

군조 : 비둘기

Contents

차 례

3	고흥의 상징
4	차 례
5	발간사
6	제 3대 고흥군의회의원 현황
7	의회 연혁 및 현황
8	'99 의회운영성과
9	군정질문 · 질의 및 답변
25	특별위원회 활동
27	일반 의정 활동
30	2000년 예산 심의
31	'99 행정사무감사
32	'98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33	의원 논단
48	의회에 바란다
51	언론으로 본 의정활동
58	2000년 의정운영 계획
60	고흥 특산물 소개
61	생활의 지혜
62	의회 안내



봉래산 용솔 (봉래면 소재)

발 간 사

존경하는 11만 군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본격적인 지방자치 출범 이후 지난 '98년 7월부터 지금까지 제3대 고흥군의회 의원 모두는 제 1, 2대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매진하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의정소식지 제5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는 전국 제일의 의정활동을 목표로 군정의 각종 취약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등을 알차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개발을 통한 군정의 개선 및 시정을 촉구하여 명실상부한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그 어느때 보다도 내실있게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토대위에서 우리군의회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여 실시하고 있는 회의 실황 방영은 군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군민으로부터 진솔하게 평가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질향상과 수준높은 전문성을 제고하고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시책의 개발을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 노력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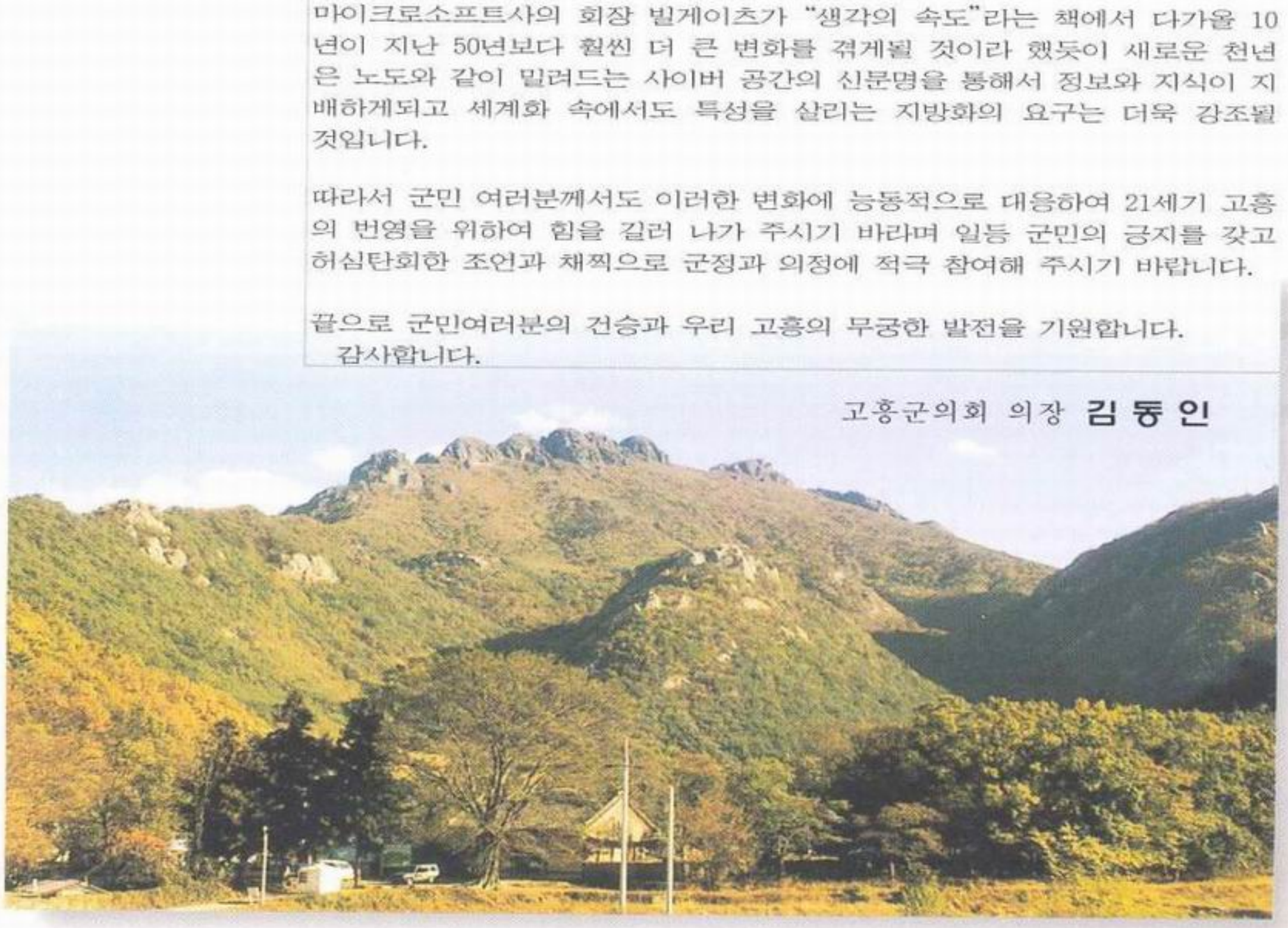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회장 빌게이츠가 "생각의 속도"라는 책에서 다가올 10년이 지난 50년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겪게될 것이라 했듯이 새로운 천년은 노도와 같이 밀려드는 사이버 공간의 신분명을 통해서 정보와 지식이 지배하게되고 세계화 속에서도 특성을 살리는 지방화의 요구는 더욱 강조될 것입니다.

따라서 군민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21세기 고흥의 번영을 위하여 힘을 길러 나가 주시기 바라며 일등 군민의 긍지를 갖고 허심탄회한 조언과 채찍으로 군정과 의정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민여러분의 건승과 우리 고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흥군의회 의장 **김 동 인**



팔영산 전경

천등산 철쭉

제3대 고흥군의회의원

의 장
김 동 인 의원

부의장
류 준 상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장 귀 석 의원

총무위원장
박 동 래 의원

산업건설위원장
박채주 의원

김 복 수 의원

유 택 근 의원

정 순 열 의원

김 수 경 의원

윤 경 식 의원

곽 상 률 의원

송 복 조 의원

송 진 수 의원

송 충 섭 의원

송 대 석 의원

송 기 웅 의원

희망과 서기로 가득한 새천년 새해 경진년을 맞이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의원일동 -

의회 연혁

1991. 3. 26	초 대 고흥군의회의원 선거(16명의원 선출)
1991. 4. 15	고흥군의회 초대의회 개원 - 전반기 : 의장 박채주, 부의장 유택근 - 후반기 : 의장 박동래, 부의장 김동인
1995. 6. 27	제 2대 고흥군의회의원 선거(16명의원 선출)
1995. 7. 10	고흥군의회 2대의회 개원 - 전반기 : 의장 송복조, 부의장 김동인 - 후반기 : 의장 김동인, 부의장 고임준
1998. 6. 4	제 3대 고흥군의회의원 선거(16명의원 선출)
1998. 7. 10	고흥군의회 제3대의회 개원 - 전반기 : 의장 김동인, 부의장 류준상

의회 기구

사무과 직원 현황

구분	계	일반직					기능직					일용
		소계	5급	6급	7급	8급	소계	7급	8급	9급	10급	
정원	13	8	3	2	2	1	5	1	2	2	-	-
현원	14	8	3	4	-	1	6	1		2	3	3

'99 의회 운영성과

회기 운영 : 8회 80일

정 기 회 : 1회 35일
임 시 회 : 7회 45일

안건처리 → 97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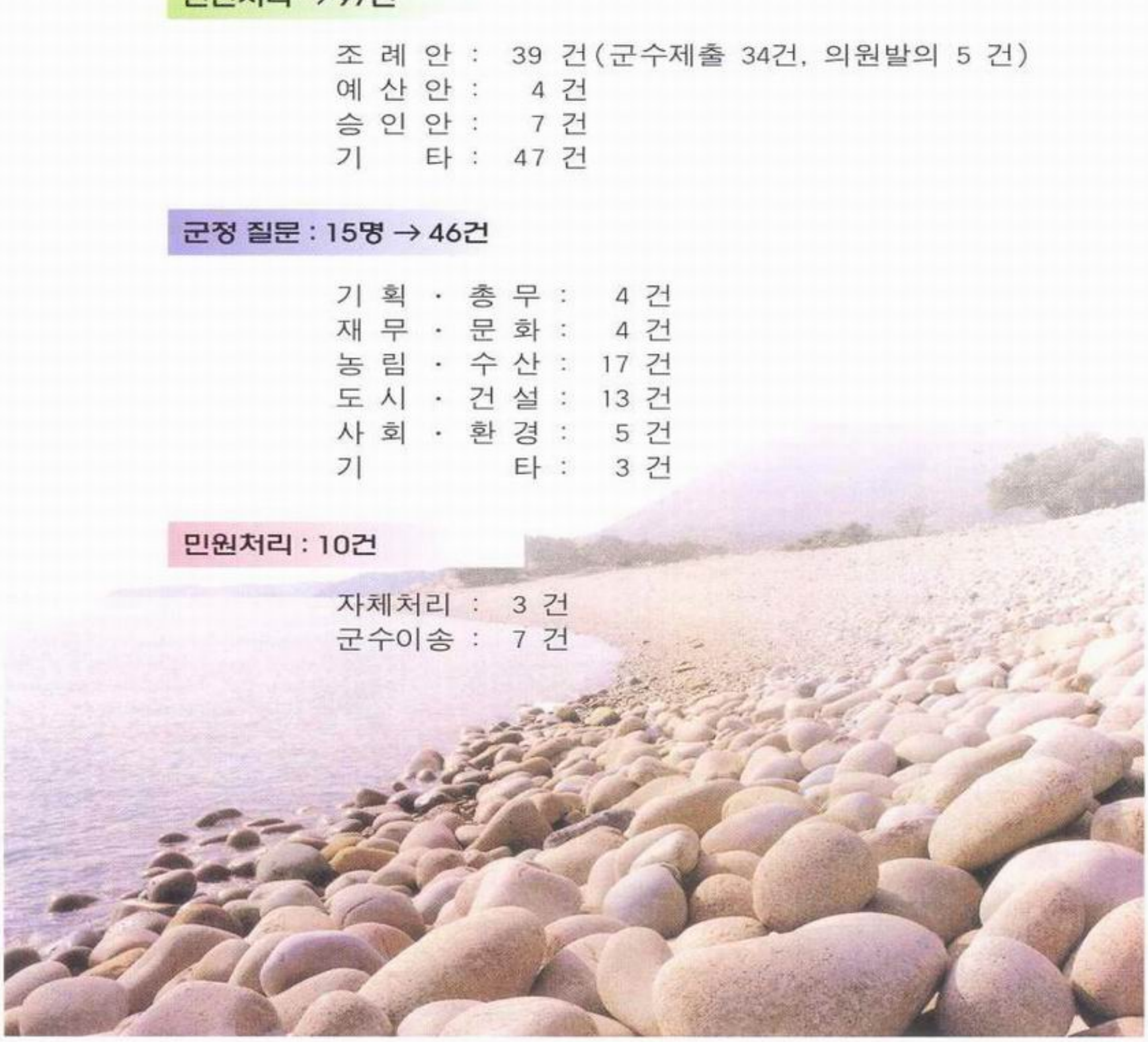
조 례 안 : 39 건(군수제출 34건, 의원발의 5 건)
예 산 안 : 4 건
승 인 안 : 7 건
기 타 : 47 건

군정 질문 : 15명 → 46건

기획 · 총무 : 4 건
재무 · 문화 : 4 건
농림 · 수산 : 17 건
도시 · 건설 : 13 건
사회 · 환경 : 5 건
기 타 : 3 건

민원처리 : 10건

자체처리 : 3 건
군수이송 : 7 건



조약돌 (금산면 오천리)

군정 질문 · 질의 및 답변

제70회 임시회 ('99. 2. 23~2. 26)와 제74회 임시회('99. 8. 31~9. 4) 그리고 제77회 정기회 중 ('99. 12. 2 ~12. 4)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김복수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군정 전반에 대하여 군민의 안목과 관심으로 군민을 위하고 살기 좋은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껴왔던 사항들을 군정 질문 · 질의 및 답변을 통해 군정에 접목 반영해 나감으로써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였다.

제77회 고흥군의회 정기회 본회의 광경

군정 질문 · 질의 및 답변

제70회 임시회 ('99. 2. 23~2. 26)와 제74회 임시회('99. 8. 31~9. 4) 그리고 제77회 정기회 중 ('99. 12. 2 ~12. 4)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김복수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군정 전반에 대하여 군민의 안목과 관심으로 군민을 위하고 살기 좋은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껴왔던 사항들을 군정 질문 · 질의 및 답변을 통해 군정에 접목 반영해 나감으로써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였다.

제77회 고흥군의회 정기회 본회의 광경

준농림지역의 일부 해제 용의는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일부 지구만 해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군민들의 생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소재지 권역에 있는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모두 해제시킬 계획은 검토되고 있는가?

답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되 변경이 안된다면 적극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음. (유창종 부군수)

문

녹동 시가지 상습 침수 대책은

녹동 시가지 상습 침수 해소대책으로 신·구항을 연결 도로개설과 동시에 배수 펌프장 설치후 조류지 확장 등 근원적인 상습 대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

답 녹동 신·구항 연결 교량공사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전동 배수 갑문을 부착할 수 있는 복합구조물 공사로 추진, 현 선박 정박지는 이설 20만톤의 조류지를 확장, 항구적인 침수예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음. (유창종 부군수)

문

녹동항의 관리권 위임후 향후 대책은

녹동항은 우리군 어업 전진기지로 주요 항만이므로 어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관광객 유치 및 항만의 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은?

답 녹동항은 '71년도에 국가관리 제1종 어항으로 승격, 관리청인 해양수산청에서 재정비 계획을 수립 현재까지 연차적으로 개발을 해오고 있는 데 2000년도에 녹동항 개발공사가 완공되면 어항정비, 유료주차장 설치등 주민의 편익과 소득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겠음. (유창종 부군수)

문

KBS 공영방송 시청료 불이익 해소 방법은

우리군은 난시청 지역이 많음에도 난시청 지역을 감안하지 않고 시청료를 임의 부과하고 있는 바, 이러한 불이익 해소 대책은 검토하고 있는가?

답 금년 9월 1일 현재 수상기 등록은 총 35,877대로 이중 60%에 해당하는 21,131가구가 시청료를 면제받고 있으며 한국방송공사에 난시청 해소를 위한 시설 증설을 촉구하고 난시청지역 조사를 통해서 주민 불편을 줄여나가겠음. (임영호 기획예산실장)

문

기술직 공무원의 설계 단가적용 불합리

각종 사업에 설계 단가가 일부 불합리 하게 적용되고 있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은?

답 설계 단가는 건설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운반거리등 현장여건을 고려 사업장별로 단가 적용이 다르는 데 직무연찬을 강화 적정한 설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윤경수 건설과장)

유택근 의원(도양읍)

문 **유자 판로 확대 방안**

우리군의 상징적인 특산물이며, 약 20년전부터 행정당국에서 집중적으로 지원 육성해 온 유자가 최근 들어 잔류 농약 시비와 홍보 부족으로 가격 폭락에 기인하여 결실기에 있는 성목을 제거하는 등 천덕꾸러기로 전락해 버린 지금, 행정당국의 유자 판로 확대를 통한 재배 농가 보호와 유자골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홍보 대책으로 메스컴(TV, 신문 등)을 이용한 홍보, PC 통신을 이용한 홍보 및 판매 전략, 출향 인사를 통한 홍보, 판매 대책, 유자 주산단지광 역협의회 활용 방안,공무원 유자제품 마시기 운동 실천, 농협을 이용한 판로 확대 방안, 유자 축제 활성화 대책,유자 시험장의 과업 전환(재배→가공)을 강구하였는가 ?

답 KBS, MBC에 유자 취재를 요청, 방영 조치하고, 고속도로등에 유자 광고판 설치 및 일간지등 다각적인 홍보매체를 활용 유자 알리기에 힘쓰고 있으며 유자넷(UJA.NET) 홈페이지에 생산,가공등 유자관련 정보를 게재 신뢰성을 높여가겠으며,재경향우회 체육행사등에 유자 가공업체 등을 동원 판촉행사를 실시하고 농특산물 대축제에 유자제품 대량 출품과 동시에 판매 및 홍보에 주력토록 하고 전남 7개 시군, 경남 4개 시군이 광역협의회를 구성, 공동과제를 채택 추진하고 있어 유자 활로개척에 도움이 될 것이며, 각급 기관단체의 각종 회의, 간담회시 유자 제품을 사용하는 등 유자제품 소비 촉진에 공직자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힘을 쓰겠음. 그리고 두원 농협이 전국 회원농협 하나로마트, 대리점 등 약 1,000여개소에 유자가공제품을 납품 판매망을 구축 운영중에 있으며 11월 5일,6일 유자축제를 개최, 유자가요제, 유자천하장사 선발대회, 유자제품 전시 판매 등 유자홍보를 위한 행사가 되도록 힘쓰겠음. 또한 풍양면 율치리 소재 난지과수시험장은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소속 기관으로서 생산분야보다 가공기술 개발에 치중할 수 있도록 계속 협조 요청을 하고 유자 식초 2종을 개발 완료하고 유자주를 개발 중에 있음.

(장동호 농정과장)

박동래 의원(풍양면)

정순열의원(도덕면)

문 **읍·면 쓰레기매립장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읍면 쓰레기장의 침출수에 의한 생활 용수의 오염방지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가?

답 침출수는 고흥군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로 이송 처리하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겠으며, 쓰레기 매립장은 차수막 시설을 철저히 설치, 토양오염 및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겠음. (박상영 환경보호과장)

문 **농산물 유통 가공업체 관리**

8개소의 농산물 유통 가공업체 중 휴·폐업한 업체는 모두 몇 개소이며 휴·폐업 원인은 무엇이며, 보조금과 융자금 지원액과 융자금 회수실적은 어떠한지? 그리고 나머지 업체의 건전 육성을 위한 행정차원의 지원 방안은?

답 휴·폐업 업체는 2개 업체로 정유식품은 폐업 상태에 있고, 도덕 마늘장아찌 가공공장은 현재 휴업중에 있으며, 정유식품은 융자금 1,500만원 전액 상환하였고, 도덕 마늘장아찌는 융자금 상환중에 있으며 농산물 가공공장 기술 및 경영컨설팅 등 지원 기술 및 경영혁신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농산물 원료 구입자금을 융자 지원하도록 하겠음. (장동호 농정과장)

문 **고흥마늘 재배와 판로 대책**

오마 육쪽 마늘의 재배 현황 및 확대 보급 재배를 권장할 용의는?

답 오마 육쪽마늘은 2개마을 12농가에서 1천여평을 재배 2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으로 확대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음. (장동호 농정과장)

문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의 현재까지 추진 현황과 수도요금 인상요인과 인상 계획은?

답 벌교에서 녹동과 도화면까지 사업비 542억원을 투입 본관로 63㎞를 매설 완료하였고 수도요금은 생산원가 873원의 46%인 406원으로 인상요인이 115%로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계획임. (김임진 도시과장)

문 **의회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대책**

군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가 극히 미흡하고 형식적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답 상위법과의 관계, 단기간에 처리하기 어려운 업무량등 제반문제들로 인하여 지연 처리되고 있으나 앞으로 보다 신속하고 충실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음.
(유창종 부군수)

문 **2010년 해양 엑스포에 대한 대책**

2010년 해양 엑스포에 따른 고흥군의 이익 흡수 방안은 무엇인가?

답 2010년 여수 해양 엑스포는 현재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유치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중으로 개최후보지와 우리 고흥반도를 연결하게 되는 연륙 연도교는 국도 17호선의 연장 승격을 '96년도부터 건설교통부 등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오고 있으며 해양리조트 시설, 호텔, 콘도등 숙박시설,그리고 골프장같은 관광기반시설을 국내의 유수 관광레저 업체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음. (유창종 부군수)

문 **어선 어업의 수지 개선 방안**

어선 어업의 수지 개선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을 위한 구상이나 대책은 있는가?

답 수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선원 공제 제도는 30톤, 50톤, 100톤등 선박의 규모에 따라 공제율을 0~50% 차등 지원하고 있는 데 50%까지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 도를 통해 중앙에 건의 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음. (유창종 부군수)

문 **환경농업을 통한 고흥 농산물 이미지 제고**

고흥의 친환경 농업의 현주소와 친환경 농업을 통한 이득과 손실은? 그리고 고흥군에 적용할 수 있는 친환경 농업 작목은 무엇이며, 고흥군 자체의 직접지불제 적용 가능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또한 친환경 농업에 대한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가?

김수경 의원(금산면)

답 141농가에서 개별적으로 74.4ha, 직접지불제로 524농가에서 168ha를 추진, 아직 걸음마 단계이며 수량과 질은 떨어지고 노동력도 많이 들어 가지만 안전한 농산물 생산으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으나 손익 계산은 곤란하며, 생식이 가능한 일반 채소류 나 과채류에 적용 발전시켜야 할 것임. 그리고 시험 사업, 교육사업, 환경에 관계된 문제, 안보에 관련된 문제는 보조 금지급이 허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직접지불제를 확대하는 방향 으로 갔으면 함. 또한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직거래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브랜드화하는 방향으로 보급할 계획임.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준상 의원(포두면)

문 **정화조 청소 미이행 근절 대책**

현재 미화사가 4개소인데 지역적 안배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정화조 현황과 년 1회 이상 청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과태료 처분과 미화사가 부당 요금을 받고 있는데 대한 대책은?

답 위치상으로 봐서 고흥 2, 녹동 1, 두원 1개가 있으며 신고된 정화조가 13,000개, 미신고 정화조가 9,000개 있으며 년 1회 이상 청소 하지 않을시는 1차 10만원, 2차에 30만원, 3차에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리고 부당 요금을 받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6개월인데 영업정지를 안시킨 대신 여러 가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박상영 환경보호과장)

문 **부실공사 근절 대책**

하도급에서부터 현장감독까지 부실공사가 이루어졌을 때 삼진아웃제도 등을 통해 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대책은?

답 무자격자 시공, 하도급율, 하도급 연속성, 현장대리 현장 주재, 주요시설 현장 시설시 현장감독 입회, 부실공사시 제재 확행등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음. (윤경수 건설과장)

문 **중장기 물문제 해결 대책**

물 문제에 대하여 고흥군 전체적인 차원에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 대처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답 면소재지까지 광역상수도가 공급될 때 48% 정도밖에 충족되지 못해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 대처하고자 함. (김임진 도시과장)

문 **우주센터 개발 대책**

우주센터 개발 후보지가 봉래면 예내리 청석금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하여온 사항은 무엇인가?

답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여온 사업으로 '99년도에 경남 남해와 봉래면 등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 후보지를 결정하고 2000년에 부지 매입과 설계, 2001~2004년까지 공사, 2005년에 로켓을 발사(중형로켓)할 것으로 알고 있음.

그동안 관련 자료를 수집함과 아울러 관내 예상 후보지 3곳을 과학기술부 등에 수차례 건의하여 왔으며, 우주항공 연구소 등 관련 기관에서 봉래면 등을 답사하기 위해 4차례 래군하여 12월 3일 신문지상에 본군 봉래면을 최종 후보지로 결정되었다고 보도된 바 있음.

(임영호 기획예산실장)

문 **공직기강 확립 및 발간실 활성화 대책**

공무원의 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행정자료 등 발간을 위한 인쇄 현황과 군 발간실 활성화 대책은?

답

공무원에 대한 복무감독을 수시 실시하여 야기된 비위의 경중에 따라 전보,훈계,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병행하고 있으며, 근무지 이탈과 직무 누설의 경우는 관계 법규에 위배되므로 감사를 실시 상응한 조치를 강구하겠으며 '99년에 소요된 인쇄비는 454건에 371,000천원이었으며 이중 외부 발주는 115건에 322,000천원, 발간실에서는 339건에 49,000천원(외부 발주로 환산시 141,00천원에 상당함)이며, 발간실에는 2명이 배치되어 있고 장비는 90년 이전에 도입 설치하여 칼라 인쇄 등은 어렵고 간단한 서식 등 만을 인쇄하고 있으며 현행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칼라 인쇄기 등 필수장비를 갖추어야 하는데 6억원이라는 많은 경비가 소요되므로 기존 장비를 보강하면 칼라 인쇄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흑백 위주로 발간하고 외부 발주를 최대한 억제하겠음.

(박정화 총무과장)

윤경식 의원(봉래면)

문 **해양수산 행정의 문제점**

세우조망어업 허가 현황과 군내 어업허가 건수 및 방치하고 있는 건수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사업 추진할 계획은?

답

득량만 해역에 46건, 나로도 해역에 124건 등 총 170건이며, 군내에 4,329척의 어선이 있으며, 어업허가 규정 건수 3,790건중 3,686건을 허가 처분 하였고 이중 방치하고 있는 허가 건수는 없으며 현재 소규모 육상 축양사업이 34개소에 39,219㎡이며 넙치,전복 등을 주로 양식하고 연간 45t 생산에 56억원의 조수입중 39억원의 순수익을 거양하고 있음. 그리고 2000년 기르는 어업에 대한 정부계획이 시달되면 세부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하겠음.

(김병득 해양수산과장)

곽상률 의원(동일면)

문 **세수증대 확보 방안**

지방자치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탈루 및 은닉된 세원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등 세수증대 확보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 바, 기 군유재산 실태조사시 확인된 자료들을 근거로 한 금후 세수증대 계획은?

답 특위에서 조사된 무단 점사용 264필지 18만 5천㎡에 대해 1,400만원의 임대료를 부과 하였고 미부과 잔여필지 298필지 20만 5천㎡에 대한 변상금은 현황 측량후 변상금부과와 함께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미이전 3천여 필지는 소유권 미이전 재산 실태 파악 및 미이전 재산 등기 추진 등 단계별로 세부계획을 수립 등기이전하고, 도로 하천 점사용은 294필지 1만 4천㎡, 6천만원의 부과액은 관련 부서와 협의 부과 징수하도록 하겠으며 통신관로등 4종 2천만원에 대한 점사용료는 관련 실과에서 추진중에 있음. (송계욱 재무과장)

문 **고질체납액 해소 대책**

열악한 우리군의 건전 재정 확보는 세수증대와 병행하여 고질체납액 회수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체납되어 있는 고질체납액의 현황 및 해소 대책과 회수 불가능한 고질체납액은 금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답 8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8억 800만원으로 4억 5천만원의 재산압류와 함께 3,500만원을 공매 처분하고, 여신규제 · 관허사업 제한등 각종 행정 제재를 강화하고, 징수 독려반과 징수 전담반을 편성 징수 완료토록 하고,행불 또는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는 결손처분을 단행하도록 하겠음. (송계욱 재무과장)

문 **재해 피해농가 대책**

각 마을별 농가별로 형평에 맞고 공정하게 조사되었는가? 그리고 재해 농가에 대한 생계 보조비 지급 기준과 농약대, 학자금, 영농자금 및 양축자금의 지원에 따른 문제점은?

답 재해 발생시 마을 담당공무원 상담소 관계자, 마을 이장이 합동으로 현지조사에 임하고 있으며, 비조사 대상자가 조사되었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으며 경작 규모별 피해율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해당 양곡량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농가별 통장에 입금 조치하고 있으며, 농약대는 ha당 49,940원이 피해율에 상관없이 지원되고 있으나 학자금, 영농자금 등은 농가당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경작규모별, 피해율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는데 필지 단위 피해율이 아니고 영세농가 생계 구호 차원에서 농가단위 피해율로 지원하고 있음. (장동호 농정과장)

(경지면적 2ha미만 : 피해율 30~50%시 백미 3가마, 50~80% 6가마, 80%이상 8가마
경지면적 2~3ha미만 : 피해율 30~50%시 백미 2가마, 50~80% 4가마, 80%이상 6가마
경지면적 3~5ha미만 : 피해율 50~80%시 백미 2가마, 80%이상 4가마)

문 **능가사 보수 대책**

팔영산과 능가사는 명실상부한 고흥의 상징으로써 고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관광 홍보물로 효과를 발휘할 것인데 팔영산 도립공원 관계와 능가사 보수 문제는?

답 능가사 복원은 해체 복원을 해야되겠다고 하는 것이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의견이며, 복원기간은 2000년까지 약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으로 문화재 관리국에서 답사하였음. (명경민 문화관광과장)

문 **각종 행사 이원화 지원 문제**

노인 게이트볼경기와 남도 음식축제에 문화관광과와 사회복지과가 이원화로 지원관장하고 있는 사유는?

답 노인 게이트볼 경기와 남도음식축제는 문화관광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노인복지 차원에서, 그리고 음식분야가 주로 여성들이 추진하고, 재료비 보상도 있고 하여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고 있음. (김영희 사회복지과장)

문 **홍양현 읍성 보수 대책**

홍양현 읍성에 대한 보수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 흥양현 읍성은 길이 1,215m중 현재 250m가 일부 훼손된 채 남아 있어 전문가의 고증을 얻어 금년에 120백만원을 투입 30m를 보수하고 년차적으로 총1,000백만원을 지원받아 성곽 보수 및 주변 정비코자 하며 2000년에 국고 보조사업으로 300백만원 신청중에 있음. (명경민 문화관광과장)

박채주 의원(점암면)

문 **사회 복지 사업 추진 대책**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성폭력 상담 요원에 대한 경비 지출 현황과 어린이 집(보육시설)운영비 지원 현황은?

답 성폭력 상담요원으로 1명을 선정, 군 여성회관에서 76일간 근무기간중 성폭력 상담 실적은 78건이며, 인건비는 1,42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흥양 어린이집 이재양 등 모두 11개소의 어린이집 시설장에게 종사자 인건비등 5종에 대하여 매월 1회씩 모두 843,086천원을 지원하였음.
(김영희 사회복지과장)

문 휴양림 운영 방안

점암면 신흥에서 휴양림으로 연결되는 임도가 휴양림과 연계되어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시기와 대안책은 수립되어 있는가? 그리고 휴양림 내의 방화수 시설이나 기타 수리시설물로 인한 각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관리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장귀석 의원(영남면)

답 점암 강산지구 임도는 신흥마을에서 휴양림까지 3.1㎞중 '95년도에 2.44㎞를 시공하고 0.66㎞는 휴양림 관리상 개설하지 못하였지만 제반 여건이 갖춰지면 연결하겠으며 수영 금지 표지판과 철조망, 깃발을 설치했고, 성수기시는 근무요원 1명이 상주하고, 전단 및 안내방송도 실시하고 있으며, 사방댐의 수위을 조절하겠음. (정종식 산림과장)

문 군도 17호선 연륙 연도교 추진

여수시 화양면과 영남면 우두로 연결되는 국도 17호선의 추진 사항은?

답 국도로 승격시켜 줄 것을 건의하여 국토개발연구원에서 2000년 10월까지 일반국도 조정 타당성을 추진중에 있음. (윤경수 건설과장)

문 고흥읍 일용품 시장 정리 및 시장 활성화 대책

고흥읍 일용품 시장 주변과 진입로 인접 상가의 구조물 설치 등 무단점유에 대한 대책과 5일 시장의 활성화 방안과 장옥사용료 징수액과 관련 인건비 및 장옥사용료 미징수 사유와 금액은?

답 일용품 시장 장옥 철거 및 신축공사가 이달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공사구간 내 무단 점유 적치물을 철거하고 현재 8개소는 설득 중에 있음. 그리고 상품의 고급화와 구매력을 집중 노력이 선행되면 재래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장옥 사용료는 현재 3,600만원 부과, 3,200만원은 징수, 400만원은 미납되고 있으며, 인건비는 3명에게 연 2,180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신광식 지역경제과장)

문 적조 피해 예방 대책

적조 발생으로 상당히 많은 굴 양식장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답 굴 수하식 어장은 도화~영남지선에 29건에 210㏊로 1630어가에서 2,940 대를 시설하였는데 1240어가에서 2,605대에 피해가 발생 50억6천만원의 손실을 보게 되었으며 피해 원인은 적조가 아닌 고수온 저비중 현상의 이상 해황으로 규명됨에 따라 전남도로부터 재해복구계획이 시달되면 피해 어가에 복구비를 지원하겠음. (김병득 해양수산과장)

송복조 의원(과역면)

문 **생활쓰레기 처리 민간 위탁운영 대책**

쓰레기 청소차 운전원이 20명, 환경 미화요원이 67명, 그리고 청소 차량 20대 등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 현황과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업무를 민간에 위탁 운영하여 쓰레기 처리 비용 절감 방안을강구할 용의는?

답 청소 차량 유지비 20대에 86,173천원, 청소 차량 운전기사 인건비 20명에 268,900천원, 환경 미화원 인건비 67명에 1,203,688천원 등 총 1,558,761천원의 경비가 소요되고 있으며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업무의 위탁 관리를 위해서는 고흥군 관내 쓰레기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위생매립장 설치 및 계근대등 기반시설 확충 후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 전남도내 22개 시·군 청소관련 업무 현황 파악결과 여수시는 전체 대행, 순천, 광양시는 일부 대행이며, 나머지 시·군단위에서는 전 자치단체가 직접 수집·운반하고 있음.
(박상영 환경보호과장)

문 **벽지 노선 버스 손실 보상 대책**

고흥여객이 적자운영으로 경영난이 매우 심각하다는데 벽지노선 버스의 손실 보상금 확대 지원 방안은?

답 관내 농어촌 벽지노선으로 지정된 31개 노선 137.5㎞(도지정 20개 노선 82.8㎞, 군지정 11개 노선 54.7㎞)에 대하여 상·하반기 교통량 조사에 의거 손실액을 산출하여('96년 150,505천원,' 97년 184,272천원, '98년 239,536천원) 매년 증액하여 지급하였고 '99년도 299,252천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타 시군과 비교할 때 장흥군을 제외하고 결코 우리군의 지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만, 지원을 확대하고자 할 경우 군 지정 벽지노선을 늘리는 길 밖에 없으나,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 형편으로는 애로 사항이 너무 많으나 군민을 위한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공영버스 지원등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고자 함. (신광식 지역경제과장)

문 도요지 정비 추진 대책

지방기념물 제80호인 운대 도요지의 훼손 문제와 도요지 개발 부지 132천㎡를 매입 전시관, 도요지 복원, 편익시설 등 도요지 정비와 관련된 추진 현황은?

답 1984년 일본인들 자료에 의거 운대 분청사기 도요지가 발견된 이후 본격적인 지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훼손된 파편이 상당함. 앞으로 지표상에 나와있는 파편에 대해서는 군에서 수집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앞으로 본격적인 개발이 될 때에는 파편들을 별도로 모아서 하나의 유적지 자료로 쓸 수 있도록 하겠으며 도요지 정비 추진 계획은 6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현재 개발부지를 112천㎡만 매입하고 있으나 그외에는 예산 관계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 (명경민 문화관광과장)

문 소년소녀 가장 지원 대책

현재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78세대에 120명이 있는데 이들을 후원하고 있는 단체 현황은, 그리고 외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을 파악하고 있는지?

답 소년소녀가장 78세대에 대해서는 전체가 마을, 면 대표, 지도자, 그리고 군·읍면 간부 공무원과 여성단체 등 사회단체 임직원과 결연을 맺고 있으며, 외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례로는 순천에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송재웅변호사와 경남 거제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군 출신 향우(성명 미상)가 있음.
(김영희 사회복지과장)

문 농산물 수출지원 대책

수출지원 업무가 단순한 자금지원과 정보제공 등 소극적인 자세에서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기업체와 농어민단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농정과와 지역경제과와의 업무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수출상품 개발 용의는?

답 농산물 수출상품 개발을 위하여 기술지도, 자재대 지원 및 재배여건을 조성하고, 수출농산물 재배현황 등 수출 정보 자료를 수집 제공으로 수출 권장 품목을 육성 수출길을 적극 모색하겠음.
(신광식 지역경제과장)

송진수 의원(남양면)

문 **군민 확보 대책**

우리군의 11만 군민 확보 운동과 연계하여 귀농자 및 농어민 자녀에게 출산 수당의 지급 대책과 전입 세대에 대한 민원택배제 실시및 살기좋은 고흥건설을 위한 중장기적인 마스터 플랜 구상 방안은 무엇인지?

답 귀농자·농어민에 대한 출산 수당은 차분히 검토를 해나가겠으며 전입세대에 대한 민원택배제는 현재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생활 안내책자를 배부하는 방안도 강구 하겠음. (유창종 부군수)

문 **노인 복지 대책**

'99년도에 경로연금 및 교통수당, 경로당 운영 등에 724,819만원을 지원 노후생활의 안정과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는 데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어느 정도인가?

답 경로연금은 8,348명에게 8월말까지 17억 6,900만원을, 노인 교통수당은 8,354명에게 9억 8,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경로당 지원은 국·도비 지원이 218개, 78개소는 군비로 100% 지원을 하고 있고, 개소당 지원액은 연간 77만 8천원을 지급하고 경로식당은 연 2,280만원 중 3/4분기까지 1,760만원을 집행하였음. (김영희 사회복지과장)

문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으로 투자한 금액은 얼마이며, 성공한 사례는 어떤 것이고, 또 실패한 이유는 무엇이며, 농어촌 이주자에 대한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답 '92년부터 390건에 3,751억원을 투자하였으나 일부 경영미숙 등으로 투자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귀농,영농 창업자금을 가구당 2천만원한도로 '98년부터 총 49가구에 8억 5,900만원이 융자 지원되었음. (장동호 농정과장)

송충섭 의원(동강면)

문 **폐공 사후 관리 대책**

관정개발 실패에 따른 폐공의 사후관리 대책과 방치하여 원상 복구되지 않고 있는 폐관정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 방안은?

답 폐공이 203개소로 원인자 부담 복구로 원상조치 하였음. (윤경수 건설과장)

문 **'99 개별공시지가 차등적용 이유**

'99 개별공시지가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사유재산과 공용 또는 공공용 재산지가를 차등 적용시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 사유재산과 공유재산을 차등 구분하여 산정한 사실은 없으나 표준지 착오 또는 특성조사 미흡으로 착오 산정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송시종 민원봉사과장)

문 **자주 재원 확보 대책**

일부 시·군에서는 자치세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들이 지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담배소비세 증대를 위하여 내고장 담배를 출향인사 등에 판매하는 등 대책은?

송대석 의원(대서면)

답 세수담당 공무원은 세수증대를 위한 생각과 마음 가짐을 항상 가지고 있으며 담배 소비 증가를 통한 지방세수 증대 방안으로 외지에 나가 있는 출향 향우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방안이 있겠으나, 적법성, 합리성, 타당성 등을 검토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는가를 연구중에 있음.
(송계옥 재무과장)

문 **수질 오염 방지 대책**

농어촌 하수구 관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 건축물 건축시 정화조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수질 오염 방지 대책은?

답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는 곳에 정화조 설치 신고가 들어오면 하수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허할 수 없으나 도시과와 협의 좋은 방안을 강구하겠는 데 단독 정화조는 수세식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를 정화하는 시설로서 년 1회이상 정화조 청소시에는 환경부 등록 요건인 80% 이상의 정화 효율을 가지고 있으며, 침전 오니는 정화조 내부에 적체되고 처리수는 방류토록 되어 있으므로 정화조 내부청소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하천오염이 예방될 수 있도록 하겠음. (박상영 환경보호과장)

문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대책**

앞으로 벌교~녹동간 4차로 확포장공사가 완공되었을시 고흥의 특산물, 농산물 등 농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판매장 개설등 유통구조 개선 대책은 ?

답 벌교~녹동 4차로 도로에 만남의 광장, 지석묘공원, 농산물 판매장 설치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중에 있으며 종합적인 계획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중에 있음. (장동호 농정과장)

문 **농가 2차 보전사업 지원**

농가의 경쟁력있는 소득원 개발에 소요되는 대출금의 이자 일부와 농가 운전자금에까지 이차 보전사업을 지원할 용의는?

답 농가별, 사업별로 수요를 파악 확대 시행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운전자금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점을 감안해서 운전자금 분야에 더 비중을 두고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음. (장동호 농정과장)

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

도시계획시설로 고시한 후 장기간 개발하지 아니한 시설 종류 및 면적, 그리고 도시계획 일몰제로 인한 매수청구권에 대한 대책은?

답 도로 등 498개소에 총 면적은 4.53㎢중 10년이상 미집행 시설은 도로등 7종 95개소에 면적은 1.13㎢이며, 20년이상 미집행 시설은 도로등 7종에 262개소 면적은 2.35㎢이고 보상비와 공사비 등 총 6,631억원이 소요될 것이며, 도시계획법 개정시 매수청구권, 미집행시설 해제 등의 조치를 실시 하겠음. (김임진 도시과장)

문 **면세유류에 대한 대책**

2001년부터 면세 유류가 중단된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답 '98년말 현재 농기계 보유대수 46,317대에 37,527㎘의 면세유류를 공급하여 농가에서 33억원의 혜택을 보고있는 데 면세유류가 중단될시 하우스 재배 농가가 큰 타격이 예상되므로 장기 저리 자금 지원 등의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계속해서 면세유류가 지원되도록 건의하겠음. (장동호 농정과장)

송기용 의원(두원면)

문 **새천년 조림정책에 대한 청사진 구상**

21세기 우리군의 산지에 적합한 조림 정책은?

답 '60년부터 '99년까지 13,402㏊에 조림하였으며 이중 편백, 삼나무, 상수리 등 5,135㏊의 경제림을 조림하였으며, 이들 수종과 후박나무, 가시나무, 동백, 황칠나무등이 우리군의 적합 수종으로 녹화위주 조림에서 목재의 안정적인 자급 기반을 확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후박, 고로쇠 등 환경림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음.
(정종식 산림과장)

특별위원회 활동

고흥군 군유재산 실태조사

군유재산 관련 자료 검토

군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방안을 강구함과 군유재산 관련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통해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99. 3. 2~6. 20까지 110일간 행정재산등 모든 군유재산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3억 170만원의 세외수입 거양과 함께 재산 관리에 따른 15개항의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하고 대책강구 및 시정 조치토록 하였다

김 유기산 공급사업 실태조사

김생산어가의 무분별한 무기산(염산) 사용으로 해양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침으로 인하여 '95년부터 '99년까지 25억37백만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김 유기산 공급에 투자하고 있으나 유기산 사용을 기피할 뿐 아니라 방치하거나 인근 바다에 무단 방류하는 사례가 있어 처리효과가 뚜렷하여 어민들이 선호할 수 있는 유기산 제품의 생산 건의등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김 유기산 공급사업이 실질적으로 어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99. 8. 2~8. 31까지 30일간 김 유기산 공급 사업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12개항에 달하는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통보 시정조치토록 함과 동시에 5개항의 정책 사항을 청와대등 관계기관에 건의, 무기산 함량을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는 실적을 거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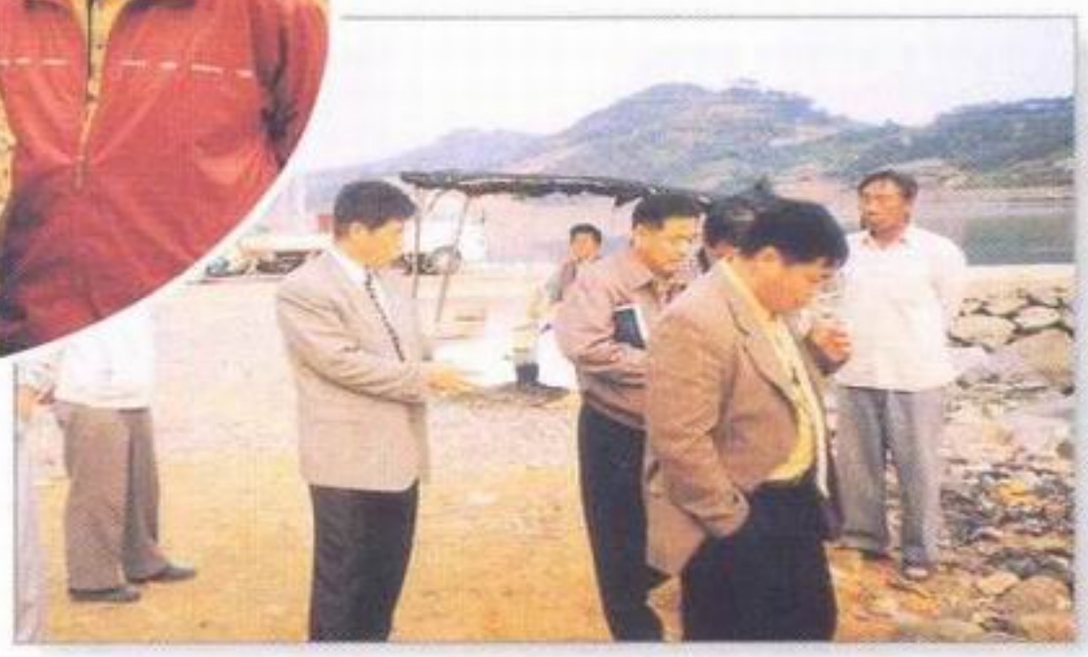
김유기산 공급사업 현지 확인(도화면)

사진으로 보는 특위활동

▲ 군유재산 관련 자료 검토

▲김 생산자와 간담회 개최(의원사무실)

▲군유재산 실태 현지 확인(포두면)



◀김 유기산 공급사업 현지확인(금산면)

▲군유재산 실태 현지확인(금산면)

▲김 유기산 공급사업 현지 확인(도화면)

일반 의정활동

'97, '98 읍면 발주사업 지적사항 처리결과 현지확인

당산 소공원 산책로 개설공사 현지확인(포두면)

집행부의 처리결과가 의회의 지적 사항에 상응한 조치가 되지 못하고, 특히 사업장별 조치사항이 원칙이나 기준없이 읍면별로 상이하게 처리되었다고 판단되어 '99. 3. 2~3. 13까지 12일간 64건의 대상사업을 확인한 결과 5개 사업이 상이하게 처리하고 있어 집행부에 통보하고 시정 조치 하도록 하였다.

'97, '98 군 발주사업 현지확인

군 발주사업 관련서류 검토

'97, '98년도에 군에서 발주 시행한 사업은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직결되는 만큼 일부 군 발주사업의 경우 부실시공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지확인을 통하여 당초 계획하고 설계된대로 시행되었는가의 여부를 파악, 부실시공 등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대책을 강구하도록 함은 물론 원초적인 부실방지에 기여하기 위하여 '99. 7. 8~7. 15까지 8일간 '97, '98 군 발주사업(464건)중 부실 우려 사업 41건에 대하여 서류 검사 및 현지 확인한 결과 31개 사업이 불합리하게 처리되고 있어, 집행부에 통보, 시정개선토록 하였다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상송 안길 포장공사 현지 확인(과역면)

'97, '98 국 · 도 · 군비 보조사업 현지확인

'97, '98년도에 군에서 발주 시행한 국 · 도 · 군비 보조사업이 당초 계획하고 목표하였던 성과를 제대로 거양하였는가를 현지확인을 통해 부실시공 등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함은 물론 원초적인 부실방지에 기여하고자 '99. 10. 10~10. 20까지 11일간 '97, '98 국 · 도 · 군비 보조사업(710건)중 83건의 부실 우려 사업 선정, 서류검사 및 현지 확인을 통해 불합리하게 처리된 17건 사업을 지적, 집행부에 통보, 시정 조치토록 하였다.

'97, '98 군 발주사업 지적사항 처리결과 확인

집행부의 처리결과가 당초 의회에서 요구한 처리 기한까지 지연 처리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적사항에 상응한 조치가 되지 못하고 있어 재확인을 통해 기한내 시정 촉구 및 적합하지 못한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재시정 요구가 절실히 대두되어 2차례에 걸쳐 지적하였던 31건 사업을 현지 확인, 1차에 13건을, 2차에 4건을 지적, 집행부에 통보, 시정 개선토록 하였다

장예 물양장 축조공사 현지확인(도양읍)

경기도 광명시의회와 우호교류 협정

광명시의회와 우호교류 추진

본격적인 세계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의 활성화와 지역주의 해소를 통한 국민 대화합 실현의 필요성이 대두 되어 경기도 광명시의회와 '99. 6. 23 우호 교류 조인식을 체결하고, 의원 합동세미나 개최 2회, 시 · 군민의 날 행사 참석 2회, 지역 탐방 2회등 활발하게 우호 교류에 힘쓰고 있다.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 유선방송을 통한 회의실황방송

▲ 탁흥-사탁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현지확인(도화면)

▲ 대전해수욕장 포장공사 현지확인(두원면)

▲ 경기 광명시의회의원과 합동 세미나 개최

▲ 전 · 현직의원 합동간담회 개최

▲ 대통항 방파제 보수공사 현지확인(도화면)

2000년 예산심의

고흥군 발전 기본 계획과 중기 지방 재정 계획등에 부합되는 충실한 예산 편성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군민에게 환원되는 사회복지와 기간산업에 중점을 두면서도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군 전체가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군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다

심사기간 : '99. 12. 7 ~ 12. 15(9일간)

심사결과

2000년도 예산규모 : 170,717,646천원

일 반 회 계 - 요구액 : 142,650,423천원
- 삭감액 : 1,084,436천원
- 의결액 : 142,650,423천원
※삭감액 1,084,436천원은 지역개발비에 충당

8개특별회계 - 요구액 : 28,067,223천원
- 의결액 : 28,067,223천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2000년 예산안 심의

'99 행정사무감사

'99년도 군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추진한 결과와 예산집행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군정이 잘못되고 미흡했던 부분을 지적, 시정토록 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작안,제시하여 2000년도 본예산 심사시 반영함은 물론 군민을 위한 올바른 군정이 되도록 하였다

의회운영 위원회 '99행정사무감사

감사기간 : '99. 11. 25~12. 1(7일간)
대상기관 : 군본청 실과소 및 읍면
감사반 편성 : 3개반 15명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16건

주요 지적사항

상임위원회별	실 과 소	지 적 사 항
총무위원회	기획예산실	각종위원회 운영 미흡 특수시책 추진 미흡
	총무과	지방세 체납액 일소 대책 미흡
	재무과	임의단체 보조금 집행 부적정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 구입선정 부적정 공설묘지 조성 대상 부지 미활용 방치
	사회복지과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회계처리 부적정
	보건소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지원사업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부적정
산업건설위원회	농정과	새우조망 어업허가 대책 미흡 제7호 태풍 올가 수산생물 피해조사시 객관적인 피해물량 산출 소홀
	해양수산과	조림사업 수종선택 부적합 산불피해지 조림사업 수종선택 부적합
	산림과	구 가축시장 부지 관리계획 소홀
	지역경제과	체계적인 상수도 관리 미흡
	도시과	가로등 관리실태 소홀
	건설과	농수산 정보 수집용 컴퓨터 보급사업 목적 부적합
	농업기술센터	

'98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98 회계년도 결산 승인

제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99. 7. 16)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 5명이 7월23일~8월14일 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한 후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76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99. 11. 16)에서 승인하였다.

총무위원회 '98 회계년도 결산안 심사

'98회계년도 결산내역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수납액)	세출(지출액)
합 계	196,436,704	197,301,403	169,302,983
일반회계	163,316,286	164,048,339	137,532,577
특별회계	33,120,418	33,253,064	31,770,406

산업건설 위원회 '98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

'98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

제76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99. 11. 16)에서 승인하였다. 예비비 지출 내용은 시설원예 버섯재배유류대, 축산농가사료대, 재해위험 시설 보수 등 지출사유가 타당하였으나, 일부 지출내용은 본 예산에 편성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비비 지출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지출 건수	지출 결정액	지 출 액	불 용 액
일반 회계	18건	2,178,874	2,158,308	20,566

의·원·논·단

균형발전을 통한 살기좋은 고흥을 건설하자

의원 김복수(고흥읍)

기초자치단체 의회가 구성된지 벌써 10년째 가을하늘 아래 오곡이 영글어가듯 의정의 경륜도 무럭무럭 영글어 가고 있는 듯하다. 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지난 선거 때 내 마음은 남다르게 감회가 깊었다. 그 중에서도 투표가 시작되면서 울렁거린 가슴의 진동이 있었다.

그것은 솔직히 당락에 대한 연민 때문이 아니라 선거구민의 바람과 내가 제시해서 실행하려던 일들이 그 어느 것 하나 예산과 결부되지 않는 것이 없었기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우리군의 재정 규모를 다시한번 생각하면서 걱정스러움이 도를 넘어 무서워지기까지 하였는데 이는 주민숙원으로 꼭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들이기 때문이었다.

국민의 정부는 환난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전화위복으로 극복해내면서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하고 2000년대 세계 일류 국가건설을 위하여 정진하고 있으며 우리군 또한 비약적인 발전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수준높은 우리 군민들이 고흥의 대표자를 선출하여 국가의 중추적 역할을 맡도록 한 선견지명의 지혜는 제삼 옷깃을 여미게 하면서 참으로 고개가 숙여진다.

그러나 이와 같이 복스러운 고흥이지만 군민의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재정자립도는 향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정에 몸담고 있는 고흥군의회 의원들은 번민을 아니할 수 없다. 어떻게 하면 군민은 늘어나고 고흥군 자치재정을 확보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의정과 군정의 목표이며 살기좋은 고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수단이다. 살기좋게 만들어야 인구가 늘어나고 가구수가 불어야 정부지원이 정비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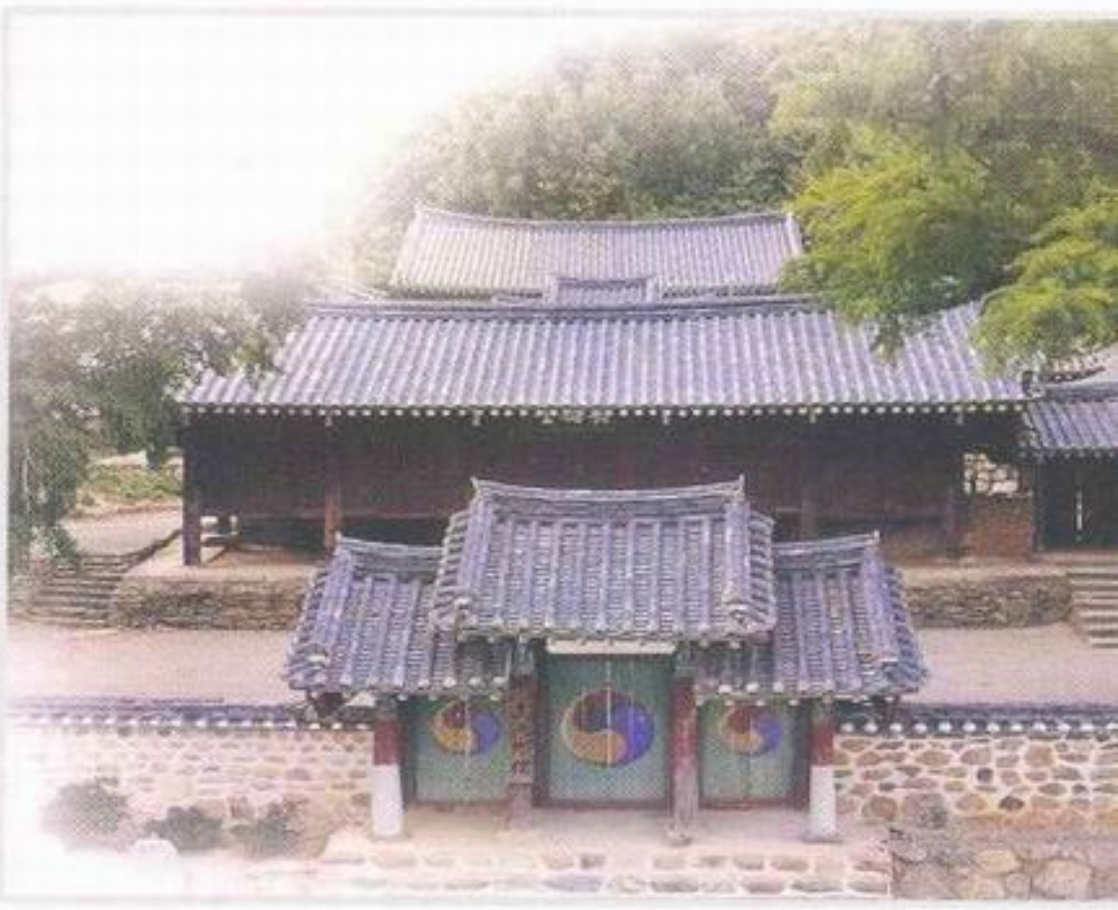
예를 들면 1998년 우리군 예산에 인구 1인당 지원교부금은 51만여원이며, 가구당 40여만원으로 인구수와 세대수는 지원 근거의 큰 틀이 된다. 살기좋게 만들려는 고흥의 발전계획도 인구유인책이고, 여기서 확충될 재정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보탬이 될 것이며, 이는 군민 여러분이 뽑아 세운 훌륭한 국회의원과 더불어 우리가 공동 노력을 해야할 사명이요 책임이다.

그런데 군민과 함께하는 의정과 군정의 목표가 뚜렷한데도 의원 개개인에게 생각만 같을 뿐 행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한가지 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현행 지방자치법에 의한 읍·면별 선거구제에 따른 지역구의 예산 문제이다. 평소 기초의원 상호간에는 재정자립도를 염려하지만 예산을 심의할 때면 자기 출신 읍·면에 더 많은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것은 공염불이 될 수 밖에 없고 그대로 예산이 배정되면 그 결과가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앞으로 인구 1만 5천명의 읍이나 인구 3,4천명 면의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를 읍면세에 따라 균형 배분될 수 있도록 의원 서로가 원내 활동시 형평성을 견지했으면 한다.

그리고 지난 9년동안 기초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군민의 바닥 여론까지 행정에 접목시키려고 노력했다고 자부하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계획된 짜임새 속에서 창의력을 발휘하여 자기 살림처럼 성실하게 군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는 노력하고 의회에서는 견제와 감시를 철저히 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 순간 너, 나를 서로 탓하지 말고 깊이 자기반성의 마음을 가져보자.그렇게 하면 진솔한 자신이 보이고 먼 미래가 보일 것이며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지 않겠는가?

우리의 고향 고흥은 참으로 복된 땅이다.
우리 모두의 터전이기에 기초 의정에 몸담고 있는 우리부터 정직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하여 이 순간도 모질게 스스로를 채찍하면서 앞장서 나가고 또 나갈 것을 다짐한다.



고흥향교(지방유형문화재 제108호 고흥읍 행정리)

의·원·논·단

군민의 다원적 이익을 대표하는 의원상 정립을 위해

의원 유택근(도양읍)

기대와 우려속에 출범한 '지방자치호'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순풍도 맞이 했지만 수많은 암초와 폭풍우 속에서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하였다.

3년간 평범한 군민 입장에서 군정을 바라보았던 시각이 제3대 의정활동을 다시 시작하면서 집행기관이 올바르게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주민대표의 임무에 보다 폭넓은 안목으로 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제 군정은 지방의회와 함께 지방자치를 이끌어 가는 두 개의 중심축을 인식하고 지방의원은 주민들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주민 만족 행정을 구현하는데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착되고 있다.

그러나 가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집행부와 지방의회의 궁극적 목표가 주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추구에 있다는 본래의 취지에 서로가 주도적 입장으로 집착한 나머지 상호이견에 의한 대립과 갈등이 심각하게 표출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는 집행부가 의회를 동반자로 생각하기보다는 불필요한 존재, 귀찮은 존재로 보는 시각, 그리고 의회는 집행부를 밀실행정, 무사안일 행정과 같은 구시대적 행정을 고수하는 비민주적 집단으로 파악하는 것이 원인이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의원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 확립, 그리고 주민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주민 대표자로서의 기능과 갈등조정 및 해결자로서 지방의회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군민의 다원적 이익을 대표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의정활동을 수행할 각오이다.

첫째, 30년간 농업정책 소외에 따른 황폐화된 농어촌을 살기좋은 복지 농어촌 건설이 조기에 성취될 수 있도록 농어민의 입장을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둘째, 도시화 위주의 관련 조례를 군민 편익증대를 위해 현실에 맞게 제·개정을 할 것이며,

셋째, 집행부의 정책결정, 예산편성 등 각종 군정사항들이 특히 저변계층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모든 군민의 행복추구 입장에서 감시와 견제, 그리고 균형을 바탕으로 더욱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각오이다.

소록도 중앙공원 (도양읍 소록리)

의·원·논·단

살맛나는 자치사회를 함께 만들자

총무 위원장 박동래(풍양면)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맞는 현시대 상황은 그야말로 세계화, 산업화, 정보화의 급류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제3대 의회는 '98년 7월 개원이후 지방 경쟁시대의 구성원으로써 자치단체의 자존(自存)을 추구하면서 주민 만족을 지향하는 행정서비스의 제공과 더불어 경쟁력 확보를 통한 실리적인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집행부와 더불어 열심히 노력해 왔다고 감히 자부(自負)해 본다.

지난 '91년부터 재개(再開)된 지방자치는 주민이 곧 행정주체이자 객체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회사나 기업은 수익을 위해 서비스의 대상인 고객 만족을 위해 일하지만, 행정은 그 주체와 객체가 똑같이 군민이 구성원으로써 군민 모두의 의견을 종합하고 서비스 제공의 형평(衡平)을 기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기능이 곧 행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그리고 모든 공무원들은 단지 11만 고흥군민의 중개자(仲介者)일 뿐이지 정작 행정이 나아가야 할 목표와 방향은 군민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주민자치시대에 돌입한 이후 우리를 둘러싼 크고 작은 환경은 변화와 개방의 속도를 차츰 배가(倍加)시키고 있고, 적자생존(適者生存)의 원리를 자연스럽게 적응시키게 되면서 여러 곳에서 도태 대상의 아우성이 들려오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속에서 지방의 선진화를 추구하고, 또한 개방된 시장의 공략을 위해서는 경쟁력 확보를 위한 참여와 공존의 노력이 앞서야 함이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주민자치의 기본 의미대로 군민의,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성숙된 군민의식을 함양함은 물론, 열악한 재정위에서 군정을 꾸려 나가는 지방정부의 노력에 격려와 채찍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며, 또한 지방정부는 유아독존적(唯我獨尊的) 사고(思考)를 지양(止揚)하고 중앙정부를 비롯한 타지방 정부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므로써, 지방의 발전이 곧 국가의 발전으로 귀결되며 국가의 부흥을 위한 노력 여하에 따라 더불어 지방이 부흥하여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안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는 우리 스스로 일을 해결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므로, 지방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에 군민 모두가 동참할 때 비로소 그 목표의 달성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며, 또한 모두가 살맛나는 자치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군민 서로의 불신(不信)과 위화감(違和感)을 타파하고 양보와 타협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시간비용을 줄임으로써, 비로소 이러한 호조건(好條件)에 힘입은 지방자치의 발전이 파생(派生)되리라 믿어 본다.

고흥유자 (풍양면 한동리)

의·원·논·단

지역의 대표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의원 정순열(도덕면)

*군민*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고흥군의회에 첫발을 내디딘지 일년 여의 세월이 흘렀다.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은 지역민과의 약속사항을 하나 하나 실천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었고 무엇보다도 지역민의 여론을 군정에 접목하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군민의 대표자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자부해 본다.

군민의 여론을 군정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와의 상반된 견해 차이가 개인적인 갈등으로 비쳐질 때 인간적으로 가장 가슴 아프게 느껴졌다.

의정 단상에서의 토론이 개인적인 감정으로까지 확대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따라서 이 기회에 집행부에 바라고 싶은 것은 상호 의견교환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고흥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여 주었으면 한다.

의원은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지역민이 바라는 숱한 민원과 고충을 해결하려 들면 한계를 느낄 때가 많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지만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

기초의원에게 특별한 권력이 주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급여나 대가가 지불되는 것도 아닌 데 때로는 의원이라는 공인신분 때문에 개인의 사업에 전념을 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무 것도 없다 하더라도 오로지 의원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항상 배우고 연구 노력하는 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군민의 대변자인 의원으로서, 또한 진정한 지역사회 봉사자로서 군민의 복리증진과 살기좋은 고흥건설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군정에 반영하는 가교 역할에 진력해 나가도록 하겠다. 아무쪼록 군민 여러분의 더 많은 성원과 격려,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리며 군민 모두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는 바이다.

고흥 한적 들노래 (무형문화재 제30호 도덕면 용동리)

의·원·논·단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

의원 김수경(금산면)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대립은 지방자치의 시행시부터 예견되어 있었고 양자의 갈등양상은 꼭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으며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으로 지방자치가 시행되자 마자 지방자치가 발달한 선진국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데 주민, 공무원, 의회의원 모두 자질과 경험부족으로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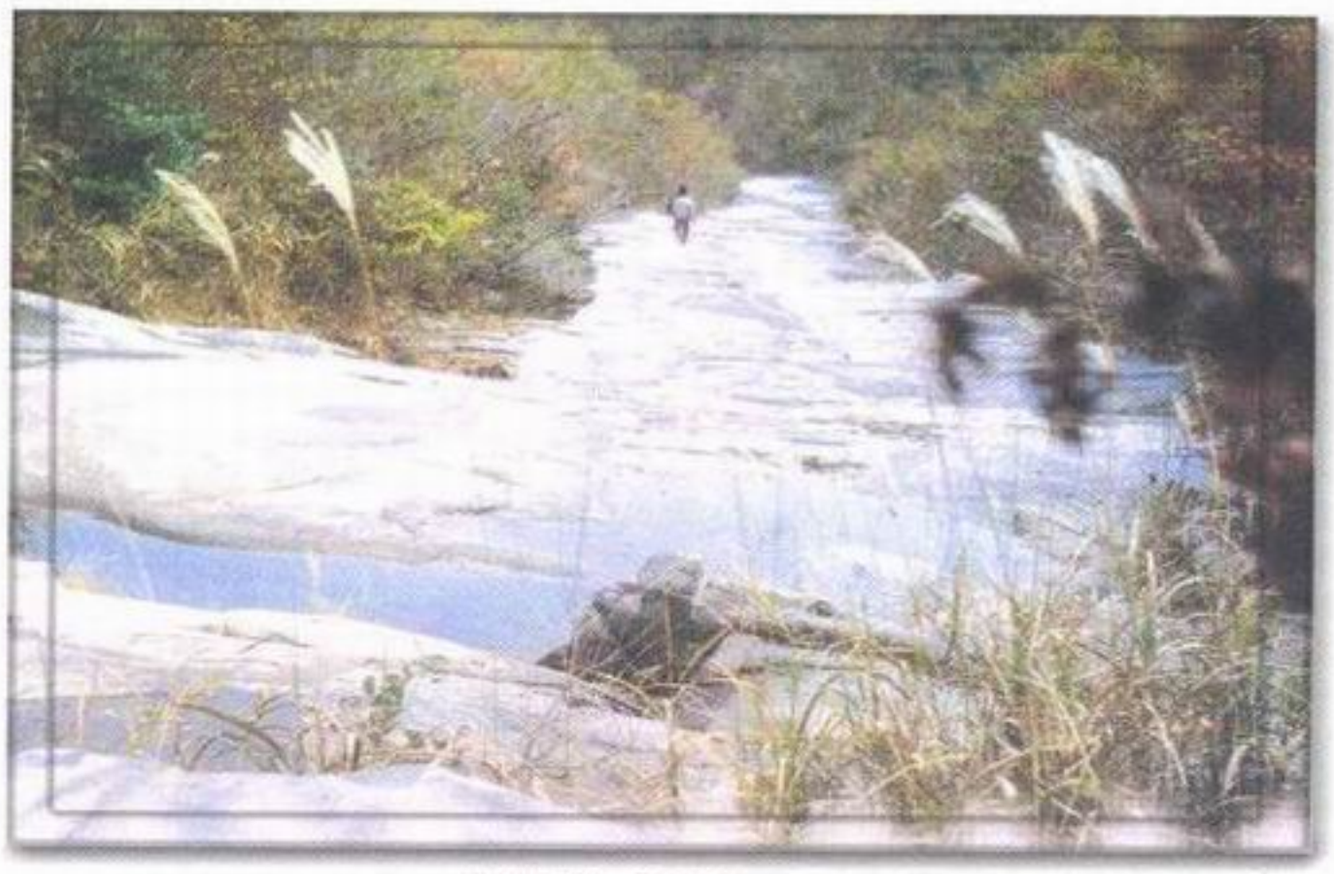
이에 대해 현행법상 지방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 권한관계,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갈등 사례의 현황과 원인분석을 검토하고,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바람직한 관계정립을 위한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기관대립주의를 채택하여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를 분립시키고 양 기관의 권력상의 균형 및 기능 수행상의 견제를 통하여 지방행정의 종합적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법규상으로는 완전한 대립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자치단체장이 우월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양 기관간의 권한의 불균형 등으로 인한 상호간 갈등, 대립이 빈번히 발생하여 지방행정 수행에 차질을 빚기도 한다.

최근의 양 기관 사이의 갈등양상을 유형화하여 보면 양주군의 감사 및 예산심의시 잦은 단체장의 출석요구 거절, 부천시의 동정자문위원회 폐지 조례안 상정 및 통과, 전라남도의 의회사무처 직원의 승진 누락은 의회 무시라는 이유로 반발 등의 사례에서 보여주듯, 대부분 갈등 원인을 분석해 보면 의원의 지역이익 집착에 따른 무리한 요구, 집행부와의 사전협의 혹은 대화 부족, 상임위원회의 비효율적 운영, 지방의회의 기능 수행과 직접 관련성이 적은 지방의회 의원의 권한, 신분, 명예, 경비 등의 위상문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집행부의 무리한 업무추진과 지방의회에 대한 협의력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군의 경우도 상호간의 위상문제, 협의력 부족 등으로 보이지 않은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상호간의 궁극적 목적이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지방행정의 종합적인 효율성을 달성하는데 있다면 양자간에 있을 수 있는 대립·갈등현상을 적절히 조정하고 상호 협력의 가능성을 증진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권한관계에 있어서 양자간의 실질적인 균형을 도모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아가 양자간의 갈등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 사전적 협의제 등 갈등 예방 제도를 모색하고, 사후적으로 주민투표제도, 주민감사 청구제도 등 갈등해소 대책 등이 제도화 될 수 있는 방안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지방자치제가 그 시행 초기인데다 준비기간 없이 갑자기 시행한 터라 갈등에 대한 조정 및 해결방안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주민들이 주인이라는 의식이 성숙될 때 제자리를 찾을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피해가 올 때만 행동하는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지역사회 발전에 노력하는 적극적 참여가 요구된다. 본 의원은 이러한 원인 분석하에 선거구 주민의 대표로서 뉴밀레니엄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고흥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의원의 전문성을 통한 집행부의 견제기능과 조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고흥의 발전이 곧 금산면의 발전이란 것을 인지하면서 천혜의 바다와 문화유산을 통한 관광고흥과 수산업 발전을 위한 어업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정책제시와 의원신분으로 먼저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므로써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의 관계는 올바르게 정착되리라 본다.



적대봉 물만내 (금산면)

의·원·논·단

미래의 땅 고흥 건설에 다같이 노력하자

부의장 류준상(포두면)

지방자치제도 가 실시되어 군의회가 개원된지가 벌써 9년이라는 적지 않은 세월이 흘렀다. 따라서 16명 의원 모두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 왔지만 시작부터 지금까지 줄곧 의원 활동을 하여온 나로서는 해를 거듭할수록 보다 많은 사명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민의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소리를 과연 얼마나 듣고 반영하였는지?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또 얼마나 많은 애를 썼는지? 또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일은 게으르게 하지 않았는지? 하는 등의 의정활동에 대한 자기반성이 이 글을 쓰기에 앞서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그러면서 내려지는 결론은 나 자신과 군민들을 위하여 앞으로는 더욱 더 많이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노력하여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앞선다. 나는 지금까지 짧지 않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고장에 대하여 줄곧 많은 생각을 하여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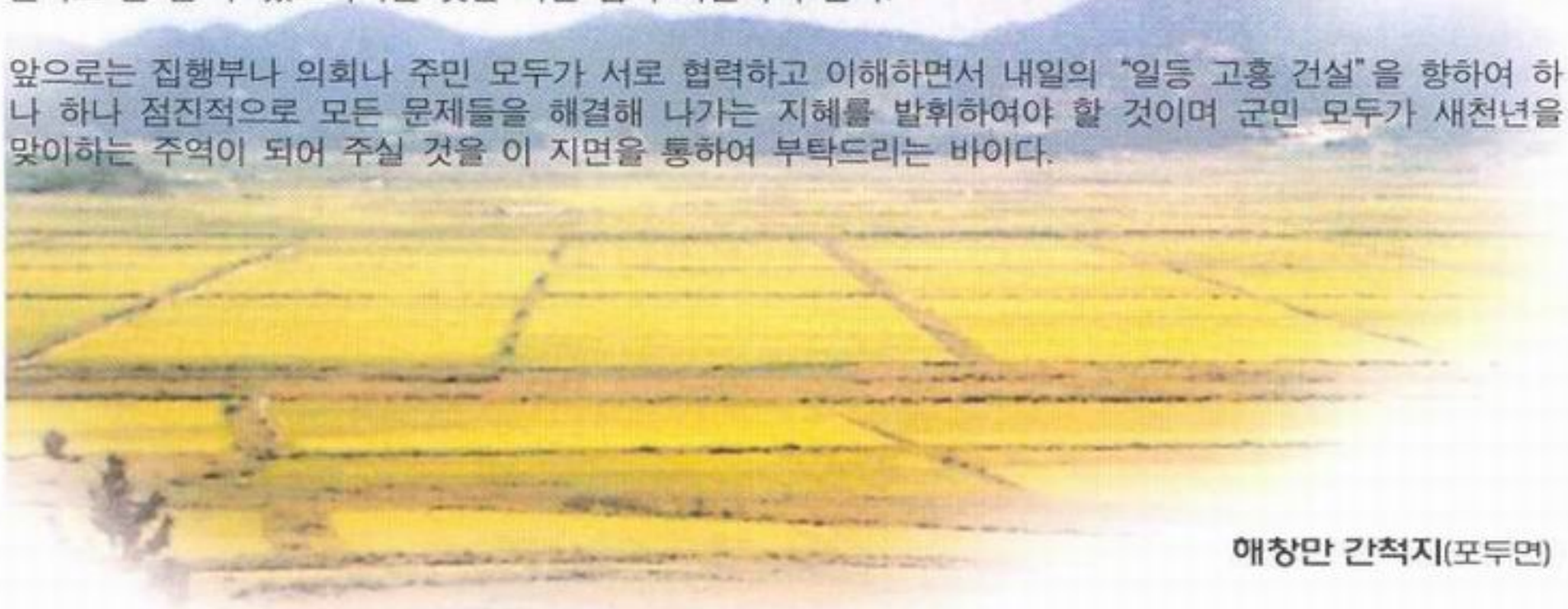
왜 이렇게 수도권뿐만 아니라 도청 소재지로부터도 이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땅인지....., 그리고 왜 특별한 자원도 별로 없는지....., 뿐만 아니라 빼어난 경관도, 큰 역사성도, 또한 좋은 지리적 조건 등 여러 가지로 발전을 가져오는 조건과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러한 땅인지, 그러나 한편으로는 특별한 땅은 못되어도 가장 평범한 고장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고장이 발전되고 또 잘 살 수 있는 고장으로 변모시킬 수 있을지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하여 본다.

그리고 틈나는대로 의정 단상에서 '공해없는 공단을 유치해라', '관광산업을 적극 개발해라', '사회간접자본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해라', '농어업 분야에 투자를 아끼지 말며 유통분야도 적극 개선해라'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우리군의 발전과 번영을 꾀할 수 있는 소리를 강도높게 외쳐보지만 여러 가지 여건 등으로 개선되는 것은 별로 없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인구의 노령화 등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그리고 경제적 발전과는 거리가 먼 지리적 조건, 특히 값싼 외국 농산물들이 밀물처럼 밀려오는 등의 여러 가지 악조건 때문에 아쉽지만 우리 고장은 지역발전도 지역경제도 지금까지 크게 발전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결코 가능성이 없다는 말인가?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 지역은 예로부터 인물 많기로 유명하고 주민들의 성품이 온유 순박하여 인심좋기로도 전국에서 으뜸이다. 한마디로 물질은 약간 부족하여도 마음은 가장 넉넉하고 풍요롭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땅은 아직도 공업화가 되지를 않고 오염되지 않아 첨단산업 유치가 하시라도 가능한, 한마디로 아껴놓은 미래의 땅이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먼 미래에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발전되고 잘 살 수 있으리라는 것을 나는 감히 확신하여 본다.

앞으로는 집행부나 의회나 주민 모두가 서로 협력하고 이해하면서 내일의 "일등 고흥 건설"을 향하여 하나 하나 점진적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지혜를 발휘하여야 할 것이며 군민 모두가 새천년을 맞이하는 주역이 되어 주실 것을 이 지면을 통하여 부탁드리는 바이다.



해창만 간척지(포두면)

의·원·논·단

문민시대에 걸맞는 열린행정 지향

의원 윤경식(봉래면)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각오로 정녕 6. 25 이후의 최대 국난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위기를 국민의 저력을 다시 모아 슬기롭게 극복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화, 정보화와 더불어 민주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앞장서 주민 자치시대를 주도해 나가고 있으며 이 땅에 참 민주주의를 불러 일으켜야 할 사명과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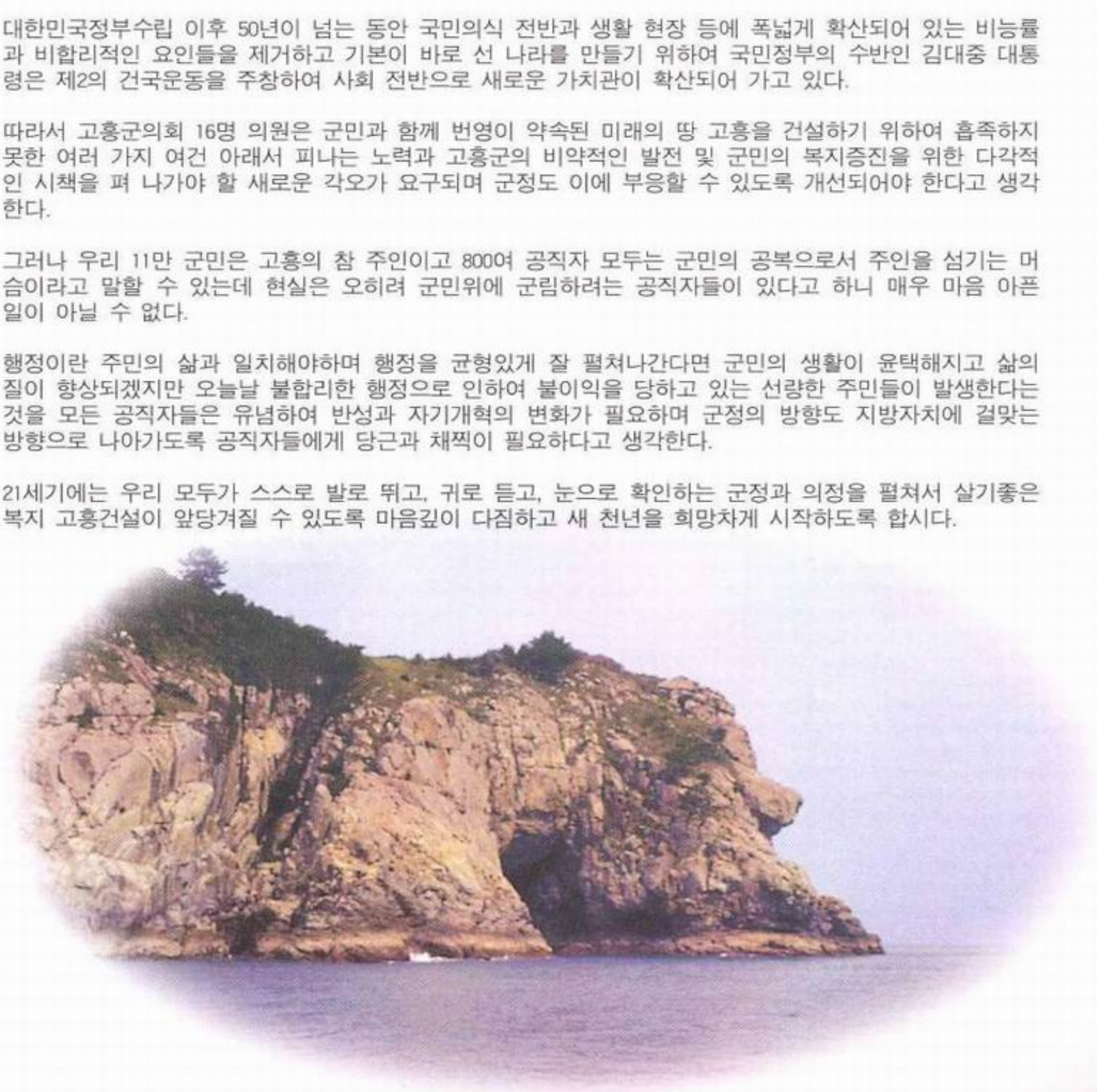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 50년이 넘는 동안 국민의식 전반과 생활 현장 등에 폭넓게 확산되어 있는 비능률과 비합리적인 요인들을 제거하고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국민정부의 수반인 김대중 대통령은 제2의 건국운동을 주창하여 사회 전반으로 새로운 가치관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고흥군의회 16명 의원은 군민과 함께 번영이 약속된 미래의 땅 고흥을 건설하기 위하여 흡족하지 못한 여러 가지 여건 아래서 피나는 노력과 고흥군의 비약적인 발전 및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펴 나가야 할 새로운 각오가 요구되며 군정도 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11만 군민은 고흥의 참 주인이고 800여 공직자 모두는 군민의 공복으로서 주인을 섬기는 머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현실은 오히려 군민위에 군림하려는 공직자들이 있다고 하니 매우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행정이란 주민의 삶과 일치해야하며 행정을 균형있게 잘 펼쳐나간다면 군민의 생활이 윤택해지고 삶의 질이 향상되겠지만 오늘날 불합리한 행정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선량한 주민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모든 공직자들은 유념하여 반성과 자기개혁의 변화가 필요하며 군정의 방향도 지방자치에 걸맞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공직자들에게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1세기에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 발로 뛰고, 귀로 듣고, 눈으로 확인하는 군정과 의정을 펼쳐서 살기좋은 복지 고흥건설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마음깊이 다짐하고 새 천년을 희망차게 시작하도록 합시다.



마침(馬寢)멀 (봉래면 예내리)

의·원·논·단

지방자치의 발전은 고흥군의 발전

의원 곽상률(동일면)

*민주주의*의 진정한 발전은 지방자치로부터 시작되며 군민 모두가 지방자치를 민주주의의 꽃 또는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한다.

지난 '91년 지방의회가 개원될 당시에는 경험도 부족하고 자치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그야말로 황무지 상태에서 출발하여 과연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낳기도 했으며, 저 역시 지방자치 대열에 참여를 희망하고 고흥군의회에 몸담은지 어언 1년이 넘은 시점에서 많은 점을 배우고 익혔으며, 또한 지역사회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뛰어온 결과 나름대로의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아진다.

우리 고흥군의회는 11만 군민의 대변자로서, 그리고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으며, 이에 따라 군민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고 자치의식을 드높임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다가올 21세기의 우리 고흥의 밝은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땀 흘리고 노력하여 더불어 함께 잘 사는 희망차고 깨끗한 고흥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지방자치단체간의 자존을 위한 열망과 노력이 거세짐에 따라 우리에게 부여된 모든 일은 우리 스스로 해결한다는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법과 질서를 스스로 지킴은 물론, 화합하고 협동하는 정신으로 번영을 위해 일로 매진해 나아갈 때 다른 자치단체보다 잘사는 고흥, 꿈과 희망이 있는 고흥, 그리고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아름다운 고흥 건설은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확신한다.

우리 군의회에서도 군민의 신뢰를 받아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써 오로지 군민의 권리와 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16명 전 의원이 발벗고 열심히 일할 각오로 뭉쳐 있다.

그리하여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선진 고흥의 토대를 마련한 주역으로써 슬기와 힘을 모아온 일꾼들이 우리 군의회를 포함한 11만 군민 모두였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주어진 본분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성천 해수욕장 (동일면 덕흥리)

의·원·논·단

지방의회의 정착을 통한 고흥발전

산업 · 건설위원장 박채주(점암면)

지난 '91년 지방의회 구성으로 30년만에 지방의회가 부활되었고 '98년 7월 제3기 의회가 출범됨으로써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고흥군의회 초대 의장과 3기 연속 지방의원을 역임하면서 의회 운영의 결과를 개관해 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주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측면도 지니고 있다.

우선 전반적으로 그동안 의회는 의정활동의 중점을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 치중하고 다분히 지방의회 운영을 경험적으로 운영하였다. 특히 법정회기 채우기 식 운영, 의회 위상의 지나친 과시와 비능률성, 법령에 어긋난 무리한 의결 등으로 집행부와 마찰이 야기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고흥군이 진정으로 선진군정이 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가치관 변화와 자치시대에 걸맞는 성숙된 군민의식이 필요하리라 본다. 20세기는 우리 모두에게 일제치하의 한일합방과 해방, 남북 분단, 5. 16 쿠데타, 5. 18 광주민주항쟁 등 격동의 시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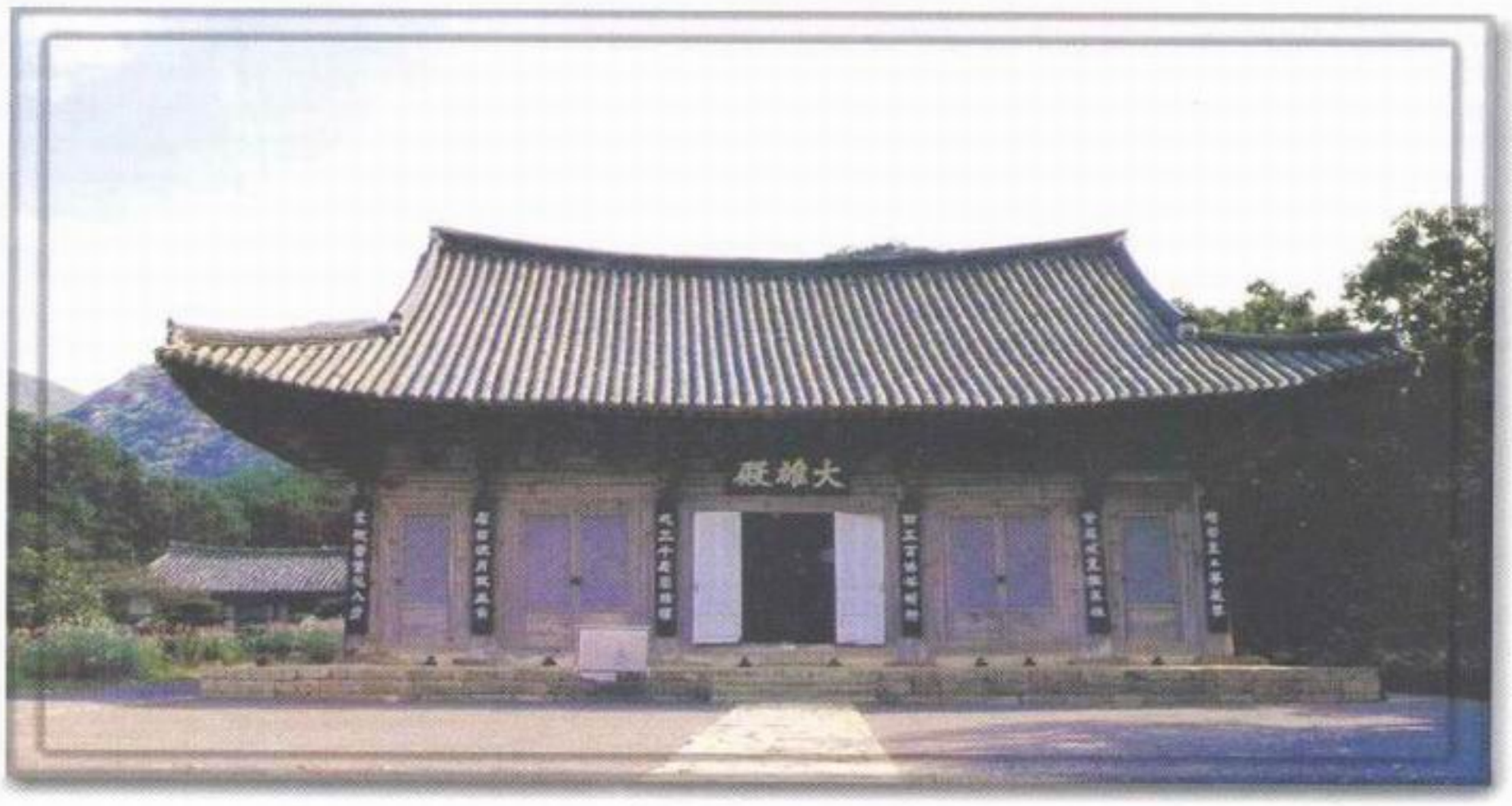
새천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9년여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빗발치는 군민들의 행정수요 욕구를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것을 가장 안타까워 하고 있다.

흔히 지방자치는 지역의 모든 일을 지역주민들이 선출한 지방의원을 통하여 주민의 의사를 여과없이 행정에 반영하는 과정이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핵으로서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개발에 기여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하나, 날로 증가하는 주민의 욕구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군의 재정형편으로 그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며 그로 인한 의원의 해결 능력 역시 암담한 벽에 부딪히는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지방자치의 정착이 이루어질 때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도 그 폭을 넓혀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새천년을 맞이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회내에서의 원활한 토의진행 기법 함양, 의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제고, 의회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외부 환경 조성을 통해 지방의회가 활성화 때만이 집행부에 대한 올바른 견제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럴 때만이 진정한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복지 농어촌 건설이 앞당겨질 것이며 희망찬 고흥발전 청사진이 전개되리라 본다.



능가사 대웅전 (점암면 성기리)

의·원·논·단

살기좋은 고흥 건설을 위한 책임을 다하자

의원 송진수(남양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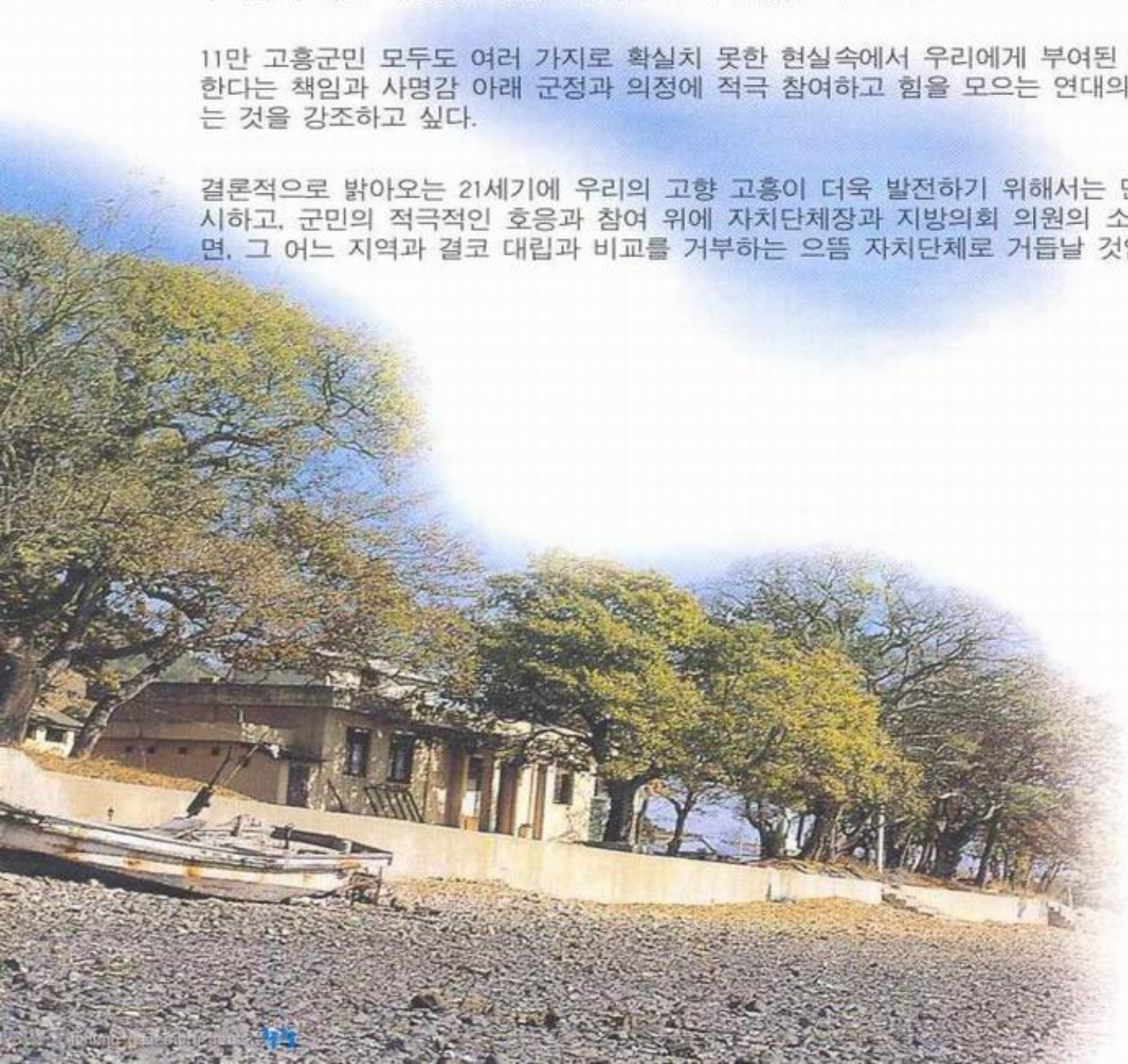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맞이하여 밖으로는 국경과 이념을 초월한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IMF의 경제 체제하에서 온 국민과 더불어 근검과 절약을 전제로 한 경제불황의 조속한 타결은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제의 부양과 더불어 금융위기 이전보다 더 튼튼하고 내실있는 사회 전반의 구조개선과 새로운 국가질서의 정립을 기대해 보는 가운데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음을 자타가 느끼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91년도 지방자치제가 태동한 이후 주민자치가 숙달되지 않은 과정에서 지역발전의 빠른 전개를 기대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였으며, 오로지 군민의 의사를 집약하여 군정과 의정에 접목시킴으로써 이를 통한 군민불편의 해소와 함께 점진적인 지역발전에 기여해온 것은 괄목할만한 사실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지역의원 모두에게는 주민이 바라는 유형무형의 짐이 양어깨에 지워져 있으며, 때문에 급변하는 시대상황 속에서 지역발전과 주민의견 수렴의 전제하에서 그야말로 성심 성의껏 열과 성을 다해 왔지만 군민들의 기대와 여망에는 100% 부응하지 못했다는 나름대로의 평점을 매겨 보지만, 그러나 앞으로는 그동안의 의정생활을 바탕으로 군민 각계 각층의 소리를 여과 없이 수용하여 의정활동 과정에 최대한 반영할 것이며,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각종 제도의 개선과 아울러 열심히 배우고 부지런히 뛰는 의원상을 정립하는데 소홀하지 않을 각오이다.

11만 고흥군민 모두도 여러 가지로 확실치 못한 현실속에서 우리에게 부여된 일은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과 사명감 아래 군정과 의정에 적극 참여하고 힘을 모으는 연대의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결론적으로 밝아오는 21세기에 우리의 고향 고흥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의 현실을 직시하고, 군민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 위에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소신과 역량이 더해진다면, 그 어느 지역과 결코 대립과 비교를 거부하는 으뜸 자치단체로 거듭날 것임을 확신해 본다.



고흥 월정리 해안방풍림
(기념물 116호 남양면 월정리 선정)

의·원·논·단

民主主義의 밑거름이 되겠다는 마음 가짐으로

의원 송충섭(동강면)

*地方自治*는 民主主義의 풀뿌리이고 따라서 지방자치의 발전없이는 中央의 民主政治가 발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核心機關인 多數의 代表로 構成되는 地方議會의 重要性과 地方議員들의 責務와 役割은 재삼 강조하지 않아도 明若觀火하다.

地域開發과 地域產業의 育成, 地域經濟의 活性化를 위하여 어떤 政策을 채택하며, 주민의 福祉增進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재원을 투입해야 할 것인가를 최종 결정하는 議決機關인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주민다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郡政에 반영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다.

또한 감시·통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사업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현지 점검하고 잘못된 점은 즉시 是正要求하는 등 나름대로의 議政活動을 성실히 수행해 오면서 주민의 公共福利와 지역의 均衡發展을 위한 최선의 政策을 도출하였는지에 대해 주변의 제반여건과 나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과연 얼마나 공평하였으며 사심없이 議政을 펼쳐 왔는지 반성해 본다.

民主主義 발전을 갈망하는 온 국민의 염원 속에 지방의원 선거를 실시 한지는 어언 10년이 되었으며 지방의원과 단체장까지 선거를 하여 地方自治를 전면 실시 한지도 6년이 되었다.

지방자치의 핵심이며 꽃이라 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활동이 民主發展과 國家繁榮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주민들이 지방의원으로 뽑아준 데 대하여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民主主義 밑거름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 본다.

신여랑 장군정려 (기념물 제111호 동강면 마륜리)

의·원·논·단

저마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

의원 송대석(대서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모두가 있어야 할 본래의 자리가 있다.
사물이 존재한다는 것은 각각 자기의 자리와 위치를 소유하고 그 위치에 적용된 본분을 다하면서 나름대로의 능력을 발휘하여 당해 자리를 지키는 것에 있다 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 제 자리가 없는 존재란 하나도 없으리라 생각한다.
가정에서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가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가 있으며 자녀들은 자녀들이 차지하고 앉아 지키고 값을 해야 할 자리가 있는 것이다.

나아가 사회에서도 지도자의 자리, 공직자의 자리, 농어민의 자리, 서비스업 종사원 자리 등 4천만 국민 모두의 제 자리가 있는 것이며, 우리가 사회 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제 자리에서 각자가 맡은 역할과 책임은 물론 주어진 사명을 다해야만이 완전한 사회가 조성된다고 해도 아마 틀림이 없을 것으로 믿고 있다.

세상 사람 모두의 자리를 놓고 보면 다음과 같은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그 자리에 있으나 마나한 사람으로 존재 가치가 별로 없는 인간이며, 둘째로 그 자리에서 없어져야 할 사람으로 이는 그 자리를 욕되게 하고 남의 지탄을 받고 있는 자이고, 셋째는 그 자리에 꼭 있어야 할 유용한 자다.

그 사람은 그 자리를 빛나게 하고 영광되게 하며 세상 모두의 존경을 받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존재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세상은 꼭 있어야 할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가 발전하고 국가의 번영을 가져올 수 있기에 국민 각자는 사회가 요구하는 구성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의정생활을 시작한지 겨우 1년을 넘긴 시점에서 되돌아 보는 짧은 역정이 반성과 후회의 껍데기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음을 스스로 인정함과 아울러,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에는 더욱 심기일전하여 지역과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해 보면서, 이 세상 누구를 막론하고 주어진 자신의 자리를 바로 알고 바르게 지키며, 그 자리에 걸맞는 언행이 일치되어야만이 비로소 모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

고흥송씨 쌍충 일렬각 (기념물 제74호, 대서면 화산리)

의·원·논·단

전문화된 지방의회를 위한 제도적 방안

의원 송기용(두원면)

어둠속을 헤매이던 지방자치가 30년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 '91년 선거로 새로운 빛을 보게 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지방자치가 드디어 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연적인 것이며, 또한 반드시 우리 손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며 이런 관점에서 지방의회의 전문성은 더욱 요구된다. 지방의회는 근대적 의미의 대표 관념에 기초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그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의회는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 입법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 집행감시 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라는 위상을 가지고 있다. 현행 지방의회는 집행기관과 대등한 위치에서 군정을 이끌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나마 지방의회의 이러한 권한들을 소화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집행부 직원들의 전문화에 비해서 명예직인 지방의회 의원들은 단지 현장 경험과 의회사무과 직원 및 전문위원들의 보조에 의존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상대적으로 의회의 권한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올바른 군정이 되기 위해서는 정책수립, 집행, 평가 등 모든 행정절차들을 피드백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출 수 있는 의원을 양성하거나 의원 유급직을 통한 직업화를 이루어 유능한 인재가 더욱 많이 의회에 입성하여 집행부에 견제와 감시는 물론 정책대안 제시등 전문성을 갖춘 의회가 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자치단체의 발전이 더욱 앞당겨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지방의회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지방의회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들이 논의되고 이를 제도화 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집행부와 지방의회가 주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고 감독하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의원들이 지방의회로 진입할 때만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과 더불어 고흥의 희망찬 미래도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감히 제언해 보는 바이다.

대전해수욕장 (두원면 대전리)

의회에 바란다

기쁨과 감사의 햇볕 깃든 삶을.....

조외과의원
조대형 원장

모처럼 일요일 오후 들녘을 나가보았더니 새삼 세월의 빠른 변화를 실감합니다. 지난 세월의 그 모진 시련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버티고 일어선 들녘을 바라볼 때 우리들에게 신성한 기쁨을 안겨주며 결코 자연의 섭리는 우리 인간을 버리지 않고 도와주고 살려주는구나 하는 감사와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모두가 풍요를 느끼는 이 좋은 시절에 더욱이나 새천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지면을 통해서나마 여러 의원님들과 군민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니 매우 반갑습니다. 새삼 무얼 말해야 한다는 사실이 짐스럽습니다만 어려운 때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 생각나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고흥사람들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많이 가졌습니다.청정해역의 아름다운 경관과 공해없는 좋은 환경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소중한 보금자리를 우리는 늘 아끼고 사랑하며 지켜 살아야 할 것입니다.

IMF 구제금융 시대를 살면서 모두들 힘듭니다만 쉽게 낙심하거나 절망치 않으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필요한 것이 마음의 건강입니다. 옛 조상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가난하고 힘든 때를 살면서도 마음의 여유와 편안을 잃지 않았고 서로 위로하며 끈끈하고 정어린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던 지혜를 우리는 배워야겠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마음의 건강과 영혼의 평화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벌써 제2건국운동 일주년이 지난 지금 관민합동으로 거창한 개혁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자발적으로 범군민적인 참여와 가장 손쉬운 일들 예를 들면 '서로 먼저 인사하고 친절히 대하기', '칭찬을 아끼지 말기', '거짓말 하거나 남을 모함하지 말기', '하루 한건씩 남을 돕고 좋은일 하기' 등의 일을 실천해 나갈 때 우리 고장에 큰 변화와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저의 단순하고 소박한 심정을 말씀드려 봅니다.

성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어려운 때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데살로니가전서 5:16~18) 이 진리는 기독교인들에게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병을 치료하는 중에 느낍니다.
마음의 평안과 감사가 사람의 몸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말입니다.
깊어가는 이 가을에 여러분의 마음 뜨락에 감사와 기쁨의 햇볕이 따스하게 깃들기를 바랍니다.

의회에 바란다

"열린의정'으로 새천년을

흥양농업 협동조합장
김 방 진

고향에 돌아와 정착한지도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돌이켜 보면 4. 19 혁명이후 30년만에 지방자치제도가 다시 실시된 '91년부터 고흥군의회가 활동해 온 지난 9년의 세월과 비슷한 기간을 고향에서 살아왔습니다.

필자는 과거 오랜 세월 중앙정치 무대에서 온갖 정치적 풍상을 경험하고 이제 고향의 초야에서 정치와는 무관하게 살아왔지만 자치시대 우리 지역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 무관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고흥군의회가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희생적으로 봉사해온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최근 군정 질의 답변 광경을 지역 유선방송을 통해 보면서 참으로 훌륭한 실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감없이 '열린 행정', '열린 의정'을 보일 수 있는 자세야말로 가장 큰 변화의 시작일 것입니다.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이런 열린 모습은 중앙정치는 물론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쉽게 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선거만 있고 대화가 없다면 참다운 지방자치는 성숙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필자는 어느 시대이든 그 당대적 해결 과제와 방향이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의 방향은 개혁일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전 부분에 걸쳐 낡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가다듬는 개혁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책무일 것입니다.
관심깊게 찾아보면 우리 지역에도 변화되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군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군의회의 기본적 사명이 있지만 우리 지역 개혁 작업에 고흥군의회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의원으로서 희생적으로 봉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런 작은 실천을 통해 군민과 함께 지역발전의 대안을 고민하고 찾아내는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회에 바란다

군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자

고흥 항운노동조합
위원장 김주식

고흥군의회가 출범한지 어언 10년!

새로운 천년을 맞이한 경진년 새해의 벽두에서 그동안 민의의 대변과 함께 군민의 복리증진을 추구하고자 쉼 없이 앞만 보고 달려온 고흥군의회의 지난 몇 년을 뒤돌아보는 것이야 말로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민주화의 과정에서 투쟁의 산물로 쟁취한 민주주의 꽃인 지방자치가 어느정도 자리를 잡아가면서 우리 고흥군의회 본연의 임무인 주권자인 군민으로부터 군정을 위임받은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군정 감시와 군정의 책임성 확보 및 대안제시를 통한 군정 참여 등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의회의 명예와 의원 개개인의 위상을 높인 긍정적인 면과 선거철만 되면 군민들을 현혹시키는 선거 구호는 차치하고 당선 이후 의정활동 속에 자신의 이해 관계에 너무 민감하여 공인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함은 물론, 오직 군민의 권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해야 함에도 출신 읍·면이나 일부 주민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애쓰는 사리사욕이 앞서는 미숙한 의정활동을 하는 일부 의원들이 눈에 뜨인다는 지역민의 여론이 있음을 상기할 때 우리 군민들의 대표요, 대변자인 의원들이 주인의식과 자치의식의 전환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함을 느끼게 한다.

이제 새 천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의원 스스로 자기성찰과 더욱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 줄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군민의 한사람으로써 의회의 앞날을 걱정하는 의도에서 의원 윤리강령을 꼭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군민의 대표자로서,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공통된 이익증진을 위해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추진해 나갈 때 우리 고흥군의회는 비로소 군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함께 받아 군민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는 의회가 되리라 확신해 본다.

언론으로 본 의정활동

12 1999년 7월 27일 화요일 전남매일

자치기반구축 활발 의정

개원 1주년결산 고흥군의회

부실공사추진 67건 적발
군유재산 조사특위 구성
3억여원 세외수입 증대
김 유기산공급 전반조사

김동인의장

고흥군의회(의장 김동인)는 제3대의회를 개원한이후 지난 1년동안 열심히 배우고 연구노력하는 의회상 정립, 확고한 자치기반 구축을 위해 다양한 활동계획을 수립, 실천에 노력해왔다.

군의회는 무엇보다 읍면정 보고를 청취하고 읍면발주 사업들을 현지확인, 67건의 부실한 공사추진과정을 적발, 시정보완조치 하는 등 건실한 사업시행에 노력해왔다.

또 군유재산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10일간 읍면 현지를 순회하며 3만3,541필지의 토지와 183건의 건축물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 무단 점사용 563건과 소유권 미이전등기재산 3,273건, 재산관리대장 누락재산 772건을 지적했다.

또 대부료와 변상금 등 1억9,990만원과 미등록 간척답 1만1,000평에 대한 환산액 1억2,000만원 등 총 3억170만원의 세외수입 증대효과를 가져왔으며 이번 조사를 계기로 토지와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큰 성과를 거뒀다.

군의회는 또 관내 김양식 어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유기산의 공급과정에서의 문제점 등 각종 의혹해소는 물론 어민들이 선호하는 유기산제품의 생산을 위한 건의를 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김 양식어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기위해 의원 7명으로 김 유기산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내달 2일부터 31일까지 김유기산 공급사업 전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고흥군의회는 또 군민과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안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본회의장에서 소신껏 발언할 수 있는 5분 자유발언제를 도입, 의정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했다.

김동인의장은 "앞으로도 본회의 주민발언 확대와 순회 의정보고회 등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정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감으로서 선진의회로 성장발전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고흥=이남재 기자

희망의신문 광주매일

광주매일 1999년 8월 9일 (월요일)

인터뷰 고흥군의회 김동인 의장

탁상행정 바로잡아 정부정책 변화 시도

"의원개개인들마다 전문가적인 식견과 지식을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과감히 바로잡아 정부정책까지도 변화시킨다는 의욕으로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고흥군의회 김동인 의장은 최근의 군유재산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하며 특위의원들이 발로 뛴 성과라고 강조했다.

김의장은 "여당소속인 군의원들이 대정부 건의에 적극 나서야 국민의 정부의 개혁과 제2건국운동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조만간 가동될 예정인 김유기산 공급사업 실태조사특위를 통해 정부 유기산 정책의 허구를 밝히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그는 "지역현실을 무시하고 탁상행정으로 이뤄지는 사업들이 행정력 및 예산낭비를 부채질 하고 있다"며 "지역의 자치현안에서부터 정부사업까지 현장에서 검증하는 의정활동을 펴겠다"고 말했다.

김의장은 끝으로 "타지역 의회에서는 하지 못한 일들을 처리함으로써 고질적인 병폐들을 개선하는 역할을 해내 전국 최고의 지방의회를 만들어 가겠다"며 "의원모두가 혼연일체가 돼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고 있어 신명나는 의회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흥=박헌주·장만우 기자〉

광주매일 1999년 12월 16일 (목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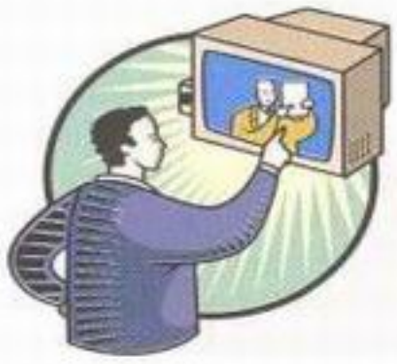
이사람 김복수 고흥군의회 예결특위위원장

"군민위한 지역현안사업 투자 중점"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날로 증가하는데 비해 지방재정은 이를 뒤따르지 못한 현실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여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향상에 중점을 둔 예산심의가 되도록 그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제77회 고흥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복수 위원장(고흥읍)은 "내년 예산은 군민들의 욕구가 충실하게 반영되고 군민모두가 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현안사업 투자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김위원장은 "이미 결정돼 있는 고흥 발전 기본계획과 중기 지방재정 계획 등에 부합되는 충실한 예산편성으로 필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군민에게 환원되는 사회복지와 기간산업에 중점을 두는 한편 선심성 예산이나 지역편중으로 인한 균형 예산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들의 중지로 시정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결산 특위는 지난 6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해당 상임위별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의에 들어갔다. 〈고흥=장만우 기자〉



언론으로 본 의정활동

〈제22호〉 1999년 2월 24일 (수요일) 고흥신문

확고한 자치기반 확립 주력

군의회 99년도 의정운영 계획수립 발표

연구 노력하는 의원상 정립도

군의회(의장 김동인 · 사진)는 99년도 의정운영 계획을 수립, 살기 좋은 지역개발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연구 노력하는 의원상 정립과 확고한 자치기반 구축에 역점을 두고 실천하기로 했다.

중점추진 계획으로 첫째, 확고한 자치기반 구축을 위해서 의원관련 협의회의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고, 임시회 7회, 정기회 1회 등 각종 회의 내실화를 기하고, 국내 연수는 물론 국내 선진 목화작목 단지를 수시 견학함으로써 의정활동능력을 배양하기로 했다.

둘째, 상임위원회 중심의 의정활동을 의욕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청일을 요일별로 지정 운영키로 했으며 상임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 하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 회의를 월1회 정례화하고, 사회단체와의 간담회도 월1회 이상 실시하며, 선진의정을 구현하고 있는 타 시군의회를 수시 방문 수법 사례를 배우고 익히기로 했다.

〈김동인 군의회의장〉

셋째, 유관기관단체와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집행부 간부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수시 개최하여 당면 군정 현안에 대한 의견청취는 물론 의정에 대한 협조체제를 유지키로 하고 유관기관 단체임직원과의 친선모임도 수시 개최하여 원활한 업무 추진에 힘쓰기로 했다.

넷째, 열린 의정실현을 위해 회의록과 의회 안내책장 발간 등을 통한 의정홍보를 강화하고, 전'현직의원 합동간담회를 년3회, 주민초청간담회 년2회, 그리고 읍·면 순회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의정활동내역을 여과 없이 지역주민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동인의장은 '99년도 의정 운영 계획을 반드시 실천해 옮김으로써 선진의정을 통한 지역개발과 군민의 복지증진이 앞당겨질 것으로 내다봤다.

고흥신문 1999년 3월 20일 (금요일)

군 의회 특위 구성 군유재산 실태조사

군 의회는 지난 임시회서 결의했던 군유재산 실태조사를 지난 15일부터 오는 5월말까지 벌인다.

류준상위원장을 필두로 5명의 의원과 관계공무원이 수행한 가운데 읍·면 현황보고 후 공용, 공공용, 보존, 잡종재산 구분 등 첨, 사용포함 및 실제 읍·면에서 업무처리 과정중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위해 군유재산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은 풍양면사무소에서 특위의원들이 서류검토를 하고 있는 모습)

호남신문 1999년 4월 6일 (화요일)

고흥군의회 광명시 답방

도·농 교류협력 활발

지난달 12일 경기도 광명시의회 의원들이 고흥군을 방문한데 이어 지난달 25일 고흥군의회 의원들이 광명시를 답방하는 등 의회차원의 도시-농촌간 교류가 추진되고 있다.

양 자치단체 의회는 지난달 12일 고흥군을 방문한 자리에서 양 시·군 의회의 우호교류 의향서를 교환하고 의원간 교류촉진과 민간부문의 경제, 문화, 예술, 체육 등 각 분야의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한다는데 합의했다.

지난달 25일 광명시 방문에서 양 의회는 양 시·군간의 실질적인 교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 실천에 옮기기로 했다.

高興/장만우 기자

1999년 6월 28일 (월요일) 광주매일 —희망의 신문

고흥군—광명시의회 상호우의 증진

우호교류 협정조인식 맺어

지난 23일 광명시민회관서

고흥군의회(의장 김동인)와 광명시의회(의장 김권천)가 영호남 지역의 화합을 위해 우호의 손을 맞잡았다. 〈사진〉

양의회는 지난 23일 광명시민회관에서 우호교류 협정조인식을 갖고 상호간의 우호증진과 교류를 통해 의정 활동 세미나 개최 등 의정활동 공조강화 ▲양지역생산품의 판매 경제인 교류지원 ▲문화예술체육 청소년 여성단체 민간단체 등의 상호 교류 증진과 활성화 지원 ▲공동관심사에 대한 협력으로 지역간 공동발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 등으로 두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교류활동을 포함

의정활동 공조강화·지역생산품 판매망 확대

민간단체 상호교류등 양지역 공동발전 결의

을 활성화시키고 지역발전에 동반자적 공동체 의식을 갖기로 했다.

이날 조인식에는 양 시군 지역 출신 국회의원인 박상천 의원, 조세형 남궁진 의원을 비롯 시군의원, 시군 관계자 유관기관 단체장 등 1백여명이 참석해 양 지역의 연대를 축하했다.

양 자치단체가 맺은 교류협정은 ▲의회정보교류 공동하고 있다.

고흥군의회 김동인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우호교류 협정조인을 계기로 공동발전에 적극 협력하고 교류활동에 내실을 기해 돈독한 자매의 관계로 발전되기를 바란다"면서 "고흥지역의 고품질 농수축산물들이 광명시민의 식탁에서도 변함없이 사랑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흥=장만우 기자〉

호남신문 1999년 3월 17일 (수요일)

포커스 고흥군·광명시 의회 교류협정

고흥군 의회(의장 김동인)는 지난 12일 고흥군의회 의장실에서 광명시의회(의장 김권천)와 우호교류 의향서를 교환했다. 양 시·군의회 의장을 비롯 의원과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간담회에서 양 의회는 앞으로 의회교류는 물론 민간부문의 경제, 문화, 예술, 체육 등 각 분야의 교류협력 방안까지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高興 / 장만우 기자

고흥신문 1999년 3월 20일 (금요일)

군의회-광명시의회 우호교류 의향서 교환
양 시·군 공동발전 도모키로

지난 12일 군 의회(의장 김동인)는 의장실에서 경기도 광명시의회(의장 김권천)와 우호교류증진 의향서를 교환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군 의회 관계자 10명과 광명시의회 6명등은 양 시·군간 평등과 호혜의 원칙을 바탕으로 의회의원간 교류촉진은 물론 경제·문화·예술 체육등 민간부문의 각 분야에 대한 교류 협력방안을 적극 추진 양 시·군간 지역공동발전을 도모키로 하고 이날 의향서를 교환했다.

언론으로 본 의정활동

고흥신문 1999년 7월 28일 (수요일)

군유재산 관리 허점 투성

군의회 특위 구성 실태조사 결과…행정의 난맥상 드러나 더 많은 세부조사 필요…군 재정수익에 큰 몫 기대

군의회가 지난 3월 2일부터 군유재산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류준상)를 구성 현장조사에 들어가 3개월 20일만에 조사결과를 발표, 모처럼 의회가 일다운 일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특위 위원들은 군유재산의 보존현황과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찾아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 방안모색과 자치재정 확충에 주안점을 두고 조사한 결과 행정의 난맥상이 드러났다고 밝히고, 의회는 지방의회 구성 이후 처음 실시된 이번 조사로 군유재산 관리체계의 방향 정립을 세웠다는데 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위는 16개 읍·면 전체와 재산관리 책임 부서인 재무과 등 8개 부서의 조사 항목을 설정 33,541필지의 토지, 183건의 건축물 등 표본 물건을 선정한 후 조사에 착수, 무단 점사용 여부, 각종 지역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용지 보상 매입 후 소유권 등기이전 누락 재산여부,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 지목이 일치한지 여부,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이행 여부 등 깊이 있는 현지조사 확인을 벌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단점유 사용재산 방치는 군유재산, 공용, 잡종지 포함 402필지, 도유재산 39필지, 국유재산 122필지를 찾아내고 드러난 점·사용 재산에 대해서는 총 8천4백75만9천원을 부과 징수할 계획이다.

또 소유권 등기 미이전 재산 방치는 읍·면당 3~5개 리의 표본조사 결과, 도로, 저수지, 건축물 등 공공용 시설 부지 소유권 등기 미이전 재산 3,273필지를 찾아냈다.

이 같은 방치부지는 공공용 시설 등의 신설과정에서 편입된 토지의 보상 매입 후 군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해야 하나 이행치 않고 방치해 소유권 분쟁시 군의 패소가 예상돼 군 재산상 피해가 우려된 부분이다.

지목상이 재산 방치는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 지목이 서로 다른 재산을 말한 것으로 2,079필지가 드러났다.

관리대장 누락재산 방치 - 772필지, 이 또한 읍·면당 2~3개 리의 표본조사결과여서 전체 세부 조사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군유재산에 대한 공시지가 적용 미흡부분은 공시지가 산정시 인근 토지나 표준지의 절반도 안되는 지가를 적용 군재산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다 합리적인조정 작업과 재공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현행 군유재산 대부료가 주변 농경지나 경작농과 비교시 대등한 여건임에도 다른 대부료의 절반 수준도 못미치는 형편이여서 조례 개정을 통한 대부료 인상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관내 대부분 읍·면의 군유재산 점용 사용 가구에서 각자 재산 매수를 희망하고 있으나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매각 조치가 극히 한정된 재산에 한해 매각 처리를 해 온 것은 부당하다고 밝히고,대상 물건 파악과 경계 측량 등 조치 후 용도 폐지와 아울러 실수요자에 매각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진종언 편집국장】

■군유재산 실태조사 마친 류준상 특위위원장

방대한 분량 현장확인 애로 효율적 재산 관리대책 시급

인터뷰

질 문 : 금번 군유재산 실태조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답 변 : 재산별 수량이 너무 방대하고, 사방 곳곳에 산재돼 있어 현지 확인 전 체 답사가 곤란하였고 경계가 불분명한 지역의 현황 파악이 용이하 지 못 해 점·사용 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

질 문 : 지금까지 군유재산 관리업무가 방치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답 변 : 업무 자체가 소외되고 군 재산 관리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인식 부족과 일선 기관장들의 관심도 저조에 따른 것으로 본다.

질 문 : 조사 결과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시는지?

답 변 : 필지별·재산별 확실한 현황 파악(측량등)으로 무단 점·사용 재산의 실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임대계약체결 추진이 우선 필요하다.

현재 무단 점·사용 가구에서 매수 희망시 적법 절차에 의 한 매 각 조 치가 요구된다.

또 일선 담당공무원의 잦은 보직 변경으로 효율적 재산관리업무가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질 문 : 앞으로 행정부서에서 해야 할 조치 사항이 있다면?

답 변 : 체계적 재산관리를 위해 재산 경계가 불분명한 필지의 현황 측량과 아울러 점·사용 재산의 확실한 파악 및 대부 관련 행정조치가 필요하다.

질 문 : 의회 개원 후 9년 동안 지금까지 이같은 사항을 알지 못했는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답 변 : 군 재산관리 업무 추진이 지금껏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알았고, 자치 재원 확보 방안 선정 및 감구 과정에서도 고려해 보지 못한 분야였다.

질 문 : 늦은 감은 있지만 큰 성과로 평가받고 있는데 늦게라도 조사하게 된 이유는?

답 변 : 지난 2월 23일 제70회 임시회 회기 중 99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 후 질의 답변 과정에서 군유재산 관리 업무의 부실상황을 감지하고 제4차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과 위원 선임 및 조사 활동에 임하게 된 것이다.

【진종언 편집국장】

광주매일 1999년 10월 26일 (화요일)

정순열 고흥군의회 김유기산특위 위원장

"효과없는 유기산 애물단지 전락 전면 실태조사 개선책 마련 시급"

"당국의 허구적인 김유기산 공급정책을 언제까지 방치할 수만은 없어 특위를 가동했으며 이제는 속시원히 밝히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순열 고흥군의회 김유기산 공급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장(도덕면)은 김유기산 정책은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라는 말로 대신했다.

정위원장은 "고흥의 김 생산량은 군 전체 바다생산량의 16%에 불과한데도 계속되는 염산사용으로 나머지 84%의 수산물 생산에 막대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며 "이는 유기산이 잡태제거에 전혀 효과가 없어 어민들이 염산사용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따라 "김유기산의 질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수적인데도 관계당국은 미봉책과 안일한 자세로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며 정책책임 기관의 전면적인 실태조사 및 개선책마련을 촉구했다.

정위원장은 "현장조사 결과 김유기산 공급의 허구성은 생각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통체계를 바로잡고 양질의 유기산을 공급하는 것만이 늦었지만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위원장은 도덕면 출신의 초선의원으로 그린 고흥 21협의회 홍보분과 위원장 군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군교육청 교육행정 자문위원 등을 맡으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다.

〈고흥=박헌주 hpark@todaykwangju.co.kr·장만우 기자〉

홍양신문 1999년 11월 1일 (월요일)

김 유기산 공급 겉돈다

군의회 조사결과 '어민 기피'

김 양식어민들이 유기산 사용을 기피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흥군의회 김 유기산 공급 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가 어촌계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고흥지역 1천3백여 김양식 어가 대부분이 무기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르면 현재 공급되는 유기산은 산도가 약해 김 잡태 제거에 효과가 적어 어민들이 무기산을 사용, 유기산이 많게 폐기돼 정부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일부 유기산의 경우 인체에 유해한 화학성분이 검출돼 전면적인 재 검토가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해 공급 잔량에 대한 시료 채취결과 고흥에 납품된 5개 회사 제품 모두가 고시 규정을 위배한 불량제품이거나 함량미달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95년부터 정부는 김 유기산 보조금으로 전국 1백4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중 전남이 1백26억원이 지원되고 있다.

김 유기산 공급 '예산만 낭비'

정부 지난해 300여t 4억어치 지원
대부분 어민 사용 외면 폐염산 이용

고흥군의회 37곳 실태조사

김 양식대에 붕괴요하게 달라붙어 있는 해초류 제거용제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김 유기산이 어민들의 외면으로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26일 고흥군의회 김 유기산 공급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illegible]·47·도덕면)에 따르면 관내 37개 어촌계별로 김 유기산 공급 및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어민들이 유기산을 바다 등에 버리고 있다. 대신 유독성 화학약품으로 사용이 금지된 공업용 폐염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김 유기산은 약효가 약해 해초류 제거에 반복해서 활용토록 돼 있어 번거로움과 함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당국에서 이같은 사정을 알고도 지난 95년이후 해마다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 어민들에게 유기산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

지난해 고흥군 1,300가구에 공급된 김 유기산은 300여 t, 국·도·군비 등으로 3억9,000여만원이 투입됐다. 이 사업비로 95~99년 고흥군에만 25억원, 전국적으로 140억여원이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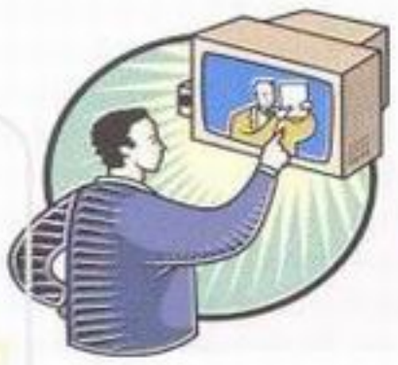
그나마 군에 납품한 5개 업체 제품도 함량미달 등 불량으로 판명됐다.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시료 분석 결과, 인체에 유해한 화학성분이 14.2% 섞여 있었다.

특위는 대안으로 질좋은 김 유기산 공급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현재의 무기산 산도 3%를 5~9%로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산처리제 성분허용 함유량을 감성장 단계별로 표시하고 수소이온농도(PH) 허용범위를 0.3에서 0.5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현재의 김 유기산 정책은 김 양식을 위해 바다를 망치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 고흥 남기창기자 kcnam@kdaily.com



언론으로 본 의정활동

고흥신문 1999년 8월 21일 (토요일)

군발주사업 곳곳에 문제점 드러나

해양수산과 소관 공사 7건, 관리감독 소홀 지적

해양수산과 소관 군발주사업들이 대부분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시공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군의회 임시회에서 97, 98 군발주사업 현지확인 조사 결과 해양수산과 관련 시공된 공사 중 총7건이 지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자료에 따르면 득량도 관청에서 선창간 도로 포장공사 1억1천9백만원이 들어간 사업이 도로이음새가 벌어지고 밴취플륨관 등 시공이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97년 시행한 시산도로 확·포장사업 1억2천6백만원 공사가 도로 곳곳이 균열및 침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98년도 시산도로 확·포장사업 630미터, 사업비 3억7천1백70만원 공사는 용벽이 조잡시공되고 콘크리트 노견 균열과 침하 등에 노상토 시공도 소홀한데다 절개지 떼붙임이 붕괴돼 현장조사에 나섰던 의회는 대표적인 부실공사로 판단하고 전반적으로 재시공 조치토록 요구했다.

또한 도덕면 당중 방파제 축조공사 사업비 2천4백여만원 사업이 방파제 피복석 쌓기 소홀, 잔골재 및 모래가 다량 함유된 공사로 설계와 다른 시공이 돼 전반적으로 재시공 조치토록 요구했다.

포두면 남성리 성두도항 선착장 축조공사 사업비 7천만원 공사가 시공소홀로 균열, 침하부분이 발생돼 재시공 조치를 요구했고, 봉래면 신금리 신창, 사양 호안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 1억2천7백89만원, 99년 1월 18일 준공된 공사는 배수시설 시공소홀과 시공기술 미숙으로 당초 설계와 다르게 시공돼 배수시설 재시공 조치토록 했다.

금산면 명천리 명천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 2건에 2억5천9백여만원에 시공된 사업이 기초콘크리트, 용벽, 천단콘크리트, 뒤채움돌이 붕괴돼 하자보수 조치토록 했다.

이같이 군발주 각종 개발사업이 크고작은 부분에서 문제점이 드러나 지적되고 있는건 관리감독 책임소홀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돼 보다 철저한 지도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진중언 편집국장】

전남매일 1999년 9월 10일 (금요일)

고흥군의회 본회의 생중계

군민들 '알권리 충족' 진일보 평가

고흥군의회가 본회의장에 영상중계 시스템을 설치하고 지난달 31일 개회한 제74회 임시회부터 본청 각 실·과·소 및 민원실로 실황중계해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의회는 영상선택기, 자막기, 송출기 등을 3,500만원의 예산으로 방송실에 설치, 본회의 실황중계 시험방송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때 녹화된 테이프을 각 읍·면 유선방송사에 방영토록 해 의정활동 상황을 안방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의회는 본회의 광경을 여과없이 생중계 함으로써 질문자인 의원이나 답변자인 공무원들의 업무 연찬과 함께 민주주의 성숙도를 높이는 고육지책으로서 군청 전체 직원들과 민원실을 찾는 주민들이 군정의 흐름을 한눈에 알 수 있게 됐다.

김동인 군의회의장은 지금은 현행법상 군청 내에서만 생중계 할 수 있지만 국회에 계류중인 종합유선방송관리법이 통과되면 군내 전체 유선방송사를 통해 생중계 해 열린 행정과 투명한 의정활동을 군민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민 3만7,000여가구가 보유한 텔리비전 수상기 중 약 70%가 유선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영향력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고흥=이남재 기자

호남신문 1999년 11월 17일 (수요일)

지방정가

도의회 원전감시시스템 공적놓고 불편한 심기

이윤자 시의원 여성정책 부재 강도높은 비판

고흥군의회 개정조례안·결산승인안등 의결

갑은 도의회의 지적에 따라 집행부는 지난 7월 개발에 착수하고 지난 9월에 우선 도 컴퓨터를 통해 이 시스템을 전격 가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에 이와관련한 일들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

이와관련 경건위 소속 모 의원은 『이번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과연 집행부가 의회가 요구한대로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지 철저히 파악할 것』이라며 으름짱./이성오 기자

○…고흥군의회는 16일 오전 제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고흥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98세출 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98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 이날 예결산특위 송기웅의원은 『양사제 준설 등 9건의 재해대책 사업비 집행에서 예측가능한 경비를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집행해야 함에도 예비비에서 우선 집행했다』고 지적.

또 송의원은 『지적사항에 대해 형식적 처리가 재발될 때는 결산승인 부결 등 의회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시정을 촉구

고흥/도윤수 기자

고흥신문 1999년 6월 9일 (수요일)

군의회 임시회 추경 50억 확정
2억2천 삭감 전액 예비비 편성

지난 5월25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열린 제72회 군의회 임시회가 금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마무리 지었다.

예결위(위원장 윤경식)는 행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중 당초 총규모 1천4백39억63만

2천의 3.6%인 52억2천9백13만8천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중 모두 2억2천2백33만8천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재원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천167억8천2백만8천원 보다 49억8천5백21만원이 증액돼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에서 3천5백만원 등 일반회계 부분에서만 2억2천2백33만8천원을 삭감했다.

또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71억8천62만6천보다 2억4천3백92만8천원이 증액 편성된 것을 상수도사업 시설비중 광역상수도 시설공사를 금시체 착수한 사업으로 경정하고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삭감없이 가결했다.

일반회계중 삭감분야는 일반행정비에서 5백11만2천원, 교육 및 문화비에서 2천4백만원, 농수산개발비에서 1억5천8백22만6천원 등이다.

예결위원장 윤경식의원은 "지역경제의 침체 국면에서 실물경제 부양에 초점을 두고 가용재원 범위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윤의원은 또 투자 우선순위와 효율성을 판단, 사업비 중복 및 과다책상여부, 지역간 균형발전, 농어민 복지증진 등 예산배분의 형평성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군민들의 혈세인 군비가 한정 의존보 없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과 사업투자 심사분석을 통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금번 추경에서 삭감돼 예비비로 편성된 2억2천2백33만8천원의 내역은 율. 변 만장 시사용 신문구독료, 자판기구입, 세역사 보수, 유지공원 전시관매장 및 탐방로 시설, 유자공원시설 사업추진, 유자공원 조성 편입용지 등지 조성비, 간이상수도 시설 영소소복기 등이다.

/진홍언 편집국장

고흥신문 1999년 3월 10일 (수요일)

"의회가 달라졌네"

개원이래 처음 밤8시까지 마라톤 질의
방청객들도 "진지했다" 소감 피력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일정에 들어갔던 제70회 의회 임시회가 변화된 의회상을 보여주는 마라톤 회의였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군의회(의장 '김동인')는 금년도 예정 본예산으로 일차 들어 지역개발과 군민 복지향상을 위해 배우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회상 정립을 지난 한 달동안 해 왔다.

의회는 99년도 본격 무료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예년과 [illegible] 시간여유를 갖고 심도 있는 질문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시간에 쫓겨 하여도 탁상행정거나 문제점에 어려움이 있다"고 모두 말하기도 하였다.

심 마. 소정 질의시간은 평균 3시간, 남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문제 등 각 분야에 많은 질의가 있었다.

과정들은 당연에 나선 행정과정에서 일부 시민과 지역주민 부족을 인정하는 날을 앞에 내, 금번 임시회는 보다 발전적이고 성숙된 면회였다는 긍정적인 평이다.

환경과 집에에 나선 유석근 의원은 쓰레기 종량제 처리와 관련 "주택밀집지역에 97년 160곳에를 제외 100곳에가 공매됐으며 98년 175곳에를 제외 80곳에가 판매, 97.98 합계 180곳에의 매고가 있는데도 또다시 금년 145곳에를 제작하려 한다며 합리한 수의계산을 들어서야 환경보호와같은 금년 제작을 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송기영의원은 고흥을 노래기 마릴장이 주지하며 이를위로부 간설과 함께 시설확장에 수의 예산 투입이 예상되고 있는에 쓰레기 매립장, 소각로 설치 등은 많은 예산이 지으로 이제는 쓰레기 감량정책 중심으로 전개해야 할 때라고 지적하고 또한 생활폐기물의 운당 처리비용에서 비릴시 108,000원, 소각시 134,000원이 소요돼 지출을 할 경우 48,000원의 수익을 올릴수있어 현 환경환경과의 재고를 촉구했다.

김수열의원은 고흥출신인물을 위해 해한 당시 농촌기도 으로서 5천만원에 구입한 크 변천지라는 지기가 만지 농업고 있다며 당으로의 사용에부를 집미 농업과로 시장 공 활용키로 했다.

이외에도 의원들의 많은 질의와 답변과 계속해 연회된 의원들의 협력을 큰 행정에 대한 적절한 지적과 감시가 에는 큰 의기로다 입하고 진지했다는 게 많은 임시회에 대한 방청객들의 평이였다.

한편 의회는 지난 26일 의기 마지막날 장애인 스포츠팀 의 초청 간담회가 확대, 참여인 하시기업과 레저개산지와 중로의 감염산림, 주택건설업지 이용당 예의 개선에건의 등 8건의 의제를 개진, 신청하고 97, 98 년 · 연 일반사업지역사항 처리결과 확인반을 구성 해당 공무원들의 의무비, 고충 기여기 위해 제자 한감했다고 하고 문하시는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공으로 지적 임시회를 마쳤다.

<신홍언 편집국장>

2000년 의정운영 계획

연구 노력하는 의원상 정립을 통하여 견제와 감시기능을 최대한으로 발휘, 살기 좋은 지역개발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군민의 대변자로서 임무와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므로써 의회기능의 활성화로 열린 의정, 참 의정을 구현하는데 있음.

의정방침

- 확고한 자치기반 구축
- 민의 수렴을 통한 열린의정 실현
- 현장 중심 의정 활동 전개
- 견제와 균형의 내실 의정 강화

1 내실있는 회의 운영

- 정례회 : 2회(7월, 12월) - 35일
- 임시회 : 수시(회기당 15일 이내) - 45일

- 의원협의회
  - ➡ 의장단협의회 : 월1회 이상
  - ➡ 의 원 협 의 회 : 월1회 이상

2 상임위원회 운영 활성화

-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등청일 지정 : 주 1회 이상
- 상임위원회 회의 정례화 : 월1회 이상

- 특별위원회 적극 활용
  - ➡ 불합리하거나 의혹을 받고 있는 행정 업무를 수시 확인 조사
  - ➡ 군민의 의혹 해소 및 대책 강구

3 의원 연수 · 연찬 적극 추진

- 국내연수 : 수시
- 세미나 개최 : 2회(반기 1회)
- 선진 특화작목단지 견학 : 2회

4 민의수렴을 위한 대화 확대

- 전 · 현직의원 합동 간담회 개최 : 2회
- 군민과의 간담회 개최 : 수시
- 읍 · 면 의정보고회 개최 : 2회(설, 추석)
- 군민의 소리 접수 창구 운영 : 1개소

5 대외 교류 확대

- 광명시의회와의 돈독한 우의 다지기 : 수시
  ➡합동 세미나 개최, 의회 및 지역발전상 견학, 의정 정보 교환
- 선진의회 방문 견학 : 수시
- 기관단체와의 친선 모임 갖기 : 수시
  ➡ 친선 체육대회, 등반대회

6 의정홍보강화

- CCTV 및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
  ➡ 본회의 의사진행 상황을 9개 유선방송망을 통해 녹화 방영
- 유인물 제작 홍보
  ➡ 회의록 발간 : 회기당 100부
  ➡ 의회 소식지 제작 : 2회(상, 하반기)
  ➡ 의회안내책자 제작 : 1회
-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 : 수시
- 의정 소식판을 통한 홍보 : 10면 (수시)

7 본회의장 개방을 통한 공개의정 구현

- 본회의장 주민 방청 확대
  ➡ 초청 방청 : 년 600명
  ➡ 임의 방청 : 방청 희망자
- 의사진행 견학 적극 권장
  ➡ 초 · 중등학생
  ➡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의사진행 상황 견학

고향 특산물 소개-유자 (柚子)

유자의 특징

유자는 비타민 C의 함량이 매우 높아 감기, 신경통, 풍, 암의 치료와 예방에 유효하며 또한 숙취를 풀고 장의 이상 발효를 예방 제거하고 디프테리아나 류마티스를 완화 하복부에 발작적으로 오는 참기 어려운 동통을 풀어줍니다.

유자의 성분

구 분	단백질	지 방	회 분	섬유질	탄수화물	비타민(개당)			
						A	B^1	B^2	C
과 피	1.2%	0.2%	0.5%	17%	1.8%	IU	mg	mg	mg
과 육	1.4%	1.0%	0.6%	12%	0.66	1,500	0.07	0.01	150

유자의 영양

- 색채와 향기로 뛰어난 고흥유자는 몸의 여러 가지 기능을 조절해 주며 생리작용을 부드럽게 해주는 비타민 A, B, C의 좋은 급원이다.
- 비타민 C가 레몬의 3배가 넘게 들어 있어 비타민 C의 보고로 불린다.
- 노란껍질과 껍질속에 들어있는 유자쪽 12개속에는 구연산, 말산, 주석산, 호박산, 비타민 C, 펙틴, 정유 등과 함께 당질, 인, 칼슘, 철분, 니코틴산 등도 많이 들어있다.
- 특히 칼슘은 배나 사과의 10배 정도 들어 있어 어린이 성장발육이나 골다공증 예방에 좋다.

유자의 효능

- 항암물질과 피부암을 다스리는 '헤스페리딘'과 '리모노이드'가 들어있다.
- 〈동의보감〉에는 유자가 중풍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적혀있는데 이는 유자속의 헤스페리딘이라는 물질이 비타민 P와 같은 효력을 발휘해 모세혈관을 보호하고 강하게 하기 때문이다.
- 풍부한 구연산 성분은 몸의 피로회복은 물론 위액의 분비를 촉진시켜 식욕을 왕성하게 하고 숙취를 풀어주기 때문에 음주후에 유자차를 한잔 마시면 쉽게 알코올이 해독된다.
- 산통에도 좋아 유산이나 출산뒤에 자궁에 염증이 생기거나 자궁에서 나쁜 피가 제거되지 않았을 때 민간 요법으로 유자껍질을 달여 먹기도 했다.

유자가공 생산품 현황

유자골 고흥

생활의 지혜

알뜰주부를 위한 깜짝 생활 아이디어

음주에 따른 숙취 해소 방법

- 우유 1잔에 식초를 차숟갈로 3개 타면 요구르트처럼 걸쭉해지는 데 여기에 벌꿀을 타서 마시면 더욱 좋다. 이 우유식초는 입술 갈라지고 입가장자리가 째지는것도 빨리 회복되도록 돕는다. 우유식초는 음주전후에 두루 좋다.
- 생수 1잔에 식초를 차숟갈로 3개정도 타는 데 여기에 벌굴을 타서 마시면 더 좋다. 물 대신 오이 생즙으로 하면 더욱 좋다.
- 칡뿌리 생즙도 좋고, 말린 칡뿌리를 달여 마셔도 좋다.
- 대나무(잎, 가지, 줄기)를 잘게 썰어 물에 달여 마시면 좋다.
- 매실과 묵은 생강을 잘 찧어 여기에 간장을 조금 넣은 후 뜨거운 물을 부어 마시면 금새 효과를 느낄수 있다.

설사를 멎게하는 민간요법

- 사과 2개를 강판에 갈아 식사 대신 먹으면 금방 설사가 멎는다.
- 밥을 먹지 말고 미지근한 물 한컵에 벌꿀을 2~3숟갈 타서 마시면 설사나 복통이 바로 멎는다.
- 생쑥을 찧어 즙을 낸 다음 물을 조금 붓고 끓여 마시면 30분후부터 설사가 멎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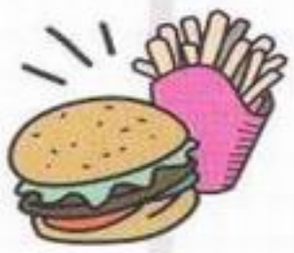
생선 가시가 목에 걸렸을때

- 생유자나 유자청을 씹어 먹으면 쉽게 가시가 제거된다.
- 유자차를 계속 끓여 마셔도 가시가 녹아 없어진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및 다시 쓰는 봉투 사용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및 분리수거 배출 요령

- 식품구입시는 신선도가 좋은 식품을 꼭 필요한 양만 구입한다.
- 가정 및 음식점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수집용기를 비치 수집하되 물기나 병뚜껑, 나무젓가락등 이물질을 없애고 수집한다.
- 수집한 음식물쓰레기는 노란색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린다.
- 수집된 음식물쓰레기는 퇴비로 재활용된다.



다시쓰는 쇼핑 봉투 사용

- '99년 2월부터 대형슈퍼나 마트에서 1회용 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하고 있는 데 고흥군에서 제작 공급하고 있는 "다시쓰는 쇼핑 봉투"를 구입 활용한다.
  (5 l 용 50원, 10 l 용 90원)
- "다시쓰는 쇼핑 봉투"는 종량제 봉투로 한번 더 활용할수 있으며, 빨리 분해되어 환경보전에도 크게 기여한다.

생활의 지혜

알뜰주부를 위한 깜짝 생활 아이디어

음주에 따른 숙취 해소 방법

- 우유 1잔에 식초를 차숟갈로 3개 타면 요구르트처럼 걸쭉해지는 데 여기에 벌꿀을 타서 마시면 더욱 좋다. 이 우유식초는 입술 갈라지고 입가장자리가 째지는것도 빨리 회복되도록 돕는다. 우유식초는 음주전후에 두루 좋다.
- 생수 1잔에 식초를 차숟갈로 3개정도 타는 데 여기에 벌굴을 타서 마시면 더 좋다. 물 대신 오이 생즙으로 하면 더욱 좋다.
- 칡뿌리 생즙도 좋고, 말린 칡뿌리를 달여 마셔도 좋다.
- 대나무(잎, 가지, 줄기)를 잘게 썰어 물에 달여 마시면 좋다.
- 매실과 묵은 생강을 잘 찧어 여기에 간장을 조금 넣은 후 뜨거운 물을 부어 마시면 금새 효과를 느낄수 있다.

설사를 멎게하는 민간요법

- 사과 2개를 강판에 갈아 식사 대신 먹으면 금방 설사가 멎는다.
- 밥을 먹지 말고 미지근한 물 한컵에 벌꿀을 2~3숟갈 타서 마시면 설사나 복통이 바로 멎는다.
- 생쑥을 찧어 즙을 낸 다음 물을 조금 붓고 끓여 마시면 30분후부터 설사가 멎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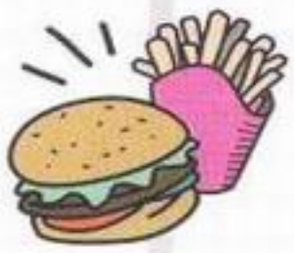
생선 가시가 목에 걸렸을때

- 생유자나 유자청을 씹어 먹으면 쉽게 가시가 제거된다.
- 유자차를 계속 끓여 마셔도 가시가 녹아 없어진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및 다시 쓰는 봉투 사용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및 분리수거 배출 요령

- 식품구입시는 신선도가 좋은 식품을 꼭 필요한 양만 구입한다.
- 가정 및 음식점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수집용기를 비치 수집하되 물기나 병뚜껑, 나무젓가락등 이물질을 없애고 수집한다.
- 수집한 음식물쓰레기는 노란색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린다.
- 수집된 음식물쓰레기는 퇴비로 재활용된다.



다시쓰는 쇼핑 봉투 사용

- '99년 2월부터 대형슈퍼나 마트에서 1회용 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하고 있는 데 고흥군에서 제작 공급하고 있는 "다시쓰는 쇼핑 봉투"를 구입 활용한다.
  (5 l 용 50원, 10 l 용 90원)
- "다시쓰는 쇼핑 봉투"는 종량제 봉투로 한번 더 활용할수 있으며, 빨리 분해되어 환경보전에도 크게 기여한다.

팔영산 괴암절벽 등산 광경

제5호 의정소식 | 편 집 : 의회사무과 (0666) 835-1228 발행처 : 고흥군의회 발행일 : 2000. 2